



윤석열 대통령, '오픈AI' 대표 샘 알트만 접견

윤석열 대통령, 오픈AI 대표 접견...한국 스타트업 기업과의 협력, 국제 규범 마련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6.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픈AI(OpenAI)' 대표 샘 알트만(Sam Altman)을 접견했다. 오픈AI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챗GPT(ChatGPT)'를 개발한 미국의 회사이다.

대통령과 알트만 대표는 AI 발전 방향, 제기된 위험 가능성과 해결책, 오픈AI와 한국 스타트업 간의 협력, 국제 규범 등에 대해 약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먼저, 대통령은 "전 세계에 챗GPT 열풍이 불고 있다"면서 "시험 삼아 신년사를 작성하면서 챗GPT에 질문을 던져보니 제법 그럴듯한 결과가 나오더라"고 말했다. 이에 알트만 대표는 "좋은 말씀 감사하다"고 하면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챗GPT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챗GPT가 발전할 수 있는 기술기반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했다.

알트만 대표는 또, "한국의 AI 스타트업들은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경쟁력을 완벽히 갖췄다"고 하면서, "한국은 반도체 제조 역량을 AI가 발전할 수 있는 자산을 이미 많이 갖고 있고, 한국의 스타트업들도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알트만 대표는 "오픈AI도 한국의 스타트업들에 대해 조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석했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오픈AI와 함께 글로벌 기업-한국 스타트업 간의 멘토링 및 인큐베이팅 협력, 기술 교류, 시스템 반도체 스타트업과의 협력 등 양자간 '콜라보 사업'을 협의했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을 비롯한 각국이 챗GPT 기술을 활용,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이고,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고 물었다. 이에 함께 방문한 그렉 브룩만 사장은 "인간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반도체 등 하드웨어와 개인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정부의 법적 제도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한 나라가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집중할 필요도 있는데, 한국은 어떤 분야에 집중하면 좋겠느냐"고 묻자, 알트만 대표는 "반도체 분야"라고 답변했다. 알트만 대표는 "AI 시대에는 비메모리 반도체도 필요하지만, 막대한 데이터량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픈 AI는 현재 대만 반도체도 많이 쓰지만, 대만이 계속 반도체 공급을 하더라도 수요를 맞추려면 한국의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한국과의 협력을 여러 나라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고 알트만 대표는 첨언했다.

또한 대통령은 "기술의 발전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챗GPT와 관련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규범도 속도감 있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알트만 대표는 "사회 내에서의 위험성을 줄이고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규

범 마련은 중요하다"면서,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대통령이 한국 기업과 한국인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를 묻자, 알트만 대표는 "첫째, AI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스템 반도체 생산 능력을 늘릴 것, 둘째, 기업 활동 규제를 없애 AI 생태계를 구축할 것, 셋째, 국제 규범을 만들어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대통령과 알트만 대표 일행은 대화를 마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선물한 "The buck stops here" 명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한편, 그렉 브룩만 사장은 동남아시아 한국 여성인 안나와 결혼했는데, 안나는 사장 보좌관으로서 오늘 함께 방문해 부부가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또, 브룩만 사장은 태권도 유단자여서 대화 중에 "한국 사위가 분명하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최광수/기자

빅데이터와 함께 정책 추진도 디지털 대전환

경북도, 빅데이터 활용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도정 추진
이달의 경제부지사
"빅데이터에 의한 행정의 디지털 대전환, 신뢰성 높은 정책"



경북도는 지난 9일, 도청 원용실에서 이달의 경제부지사 주재로 각 부서장, 경북연구원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해, '2023년 데이터 기반 행정실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빅데이터와 과학적 분석 기법에 기반한 신뢰성 높은 정책 수립과 의사 결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에 대비한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개최됐다.

최순규 빅데이터과장은 ▲데이터 개방 및 공동활용 방안 ▲데이터 분석 및 정책 활용 ▲데이터기반행정 역량강화 등 진행 중인 다양한 정책과 구간 추진됐던 사례 소개를 통해 데이터기반 행정실태를 설명했다.

또 도정 각 분야의 데이터를 연계·통합해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상북도 빅데이터 통합 포털(www.gbdata.kr)'에 대해 소개했다.

데이터기반행정 조기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실태점검에 대비해 평가지표 점검과 부서별 역할 논의를 통해 평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달의 경제부지사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데이터기반행정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실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 도정 전반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의 디지털 대전환으로 신뢰성 높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기도 김동연지사, 화성벚놀이축제는 해양레저 발전의 큰 전기

6월 9일부터 11일까지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에서 화성벚놀이축제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에서 열린 '화성벚놀이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행사의 성공을 응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해양레저 수요 인구가 260% 증가했다. 올 3월 국제보트쇼에서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목도 했고, 화성벚놀이 축제가 해양레저의 커다란 발전의 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업 투자 유치, 투자기업의 공장 기공식,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위해 가장 많이 왔던 도시 중 하나가 화성이다. 지난해 9월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을 보기 위해 배

를 타고 (전곡항에서) 바다로 나간 적도 있다"라며 축제가 열린 화성시에 대한 애정도 내비쳤다.

그러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공동 대응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오염수가 방류되면 인근 남·동해뿐만 아니라 경기바다까지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경기바다와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고, 어민과 수산업, 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힘을 합쳐 대처해야 한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한다"라고 강조했다.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화성벚놀이 축제는 ▲전국 낚시대회 ▲해상 퍼레이드 ▲해상승선 체험 ▲아간 선상 불꽃놀이 ▲축하 문화공연 및 버스킹 등 다양한 체험과 공연으로 구성됐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경기관광축제로 연속 선정돼 경기도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화성벚놀이축제를 비



이흥수/기자

보건복지부,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 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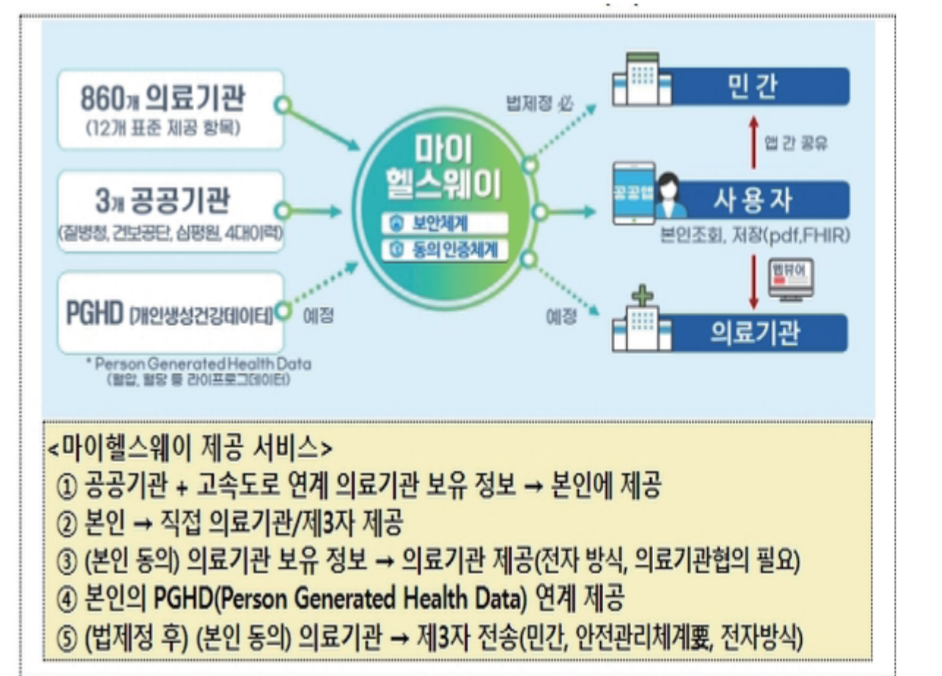
2023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회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6월 9일 15시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데이터위원회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인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2023 건강정보 고속도로 추진계획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올해 하반기에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 추진하여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에게 제공하고,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 등에 자신의 데이터를 전송·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검사, 약물 처방 정보 등 12개 항목의 표준화된 의료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기관 간 의료데이터 교류와 전송이 쉽도록 보건의료데이터 표준 고시 개편을 추진한다. 현행 의료용어 중심으로 마련된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을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핵심교류데이터(KR CDI), 핵심공통상세규격(KR Core) 및 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디지털 헬

스케어의 핵심 가치는 환자과 가족, 나아가 모든 국민의 보건 증진"이라고 밝히며,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지아/기자

전남도, 디지털 전환 이끌 핵심 인재 양성 본격화

순천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선정...8년간 국비 150억 지원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산업현장 요구를 반영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교육체계를 혁신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수요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전문·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전남도와 순천대학교는 디지털전환 및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을 선도하는 NOVA 플랫폼 기반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구조, 교육, 취·창업, 가치혁신, 4개의 세부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순천대학교는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사이언스학과를 설립하고 소프트웨

어 관련학과 정원 및 교원 채용을 확대하며 비대면 교육 및 실습을 위한 교육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등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또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소프트웨어 전공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500개 기업과 산학 플랫폼을 구축해 산학프로젝트, 장기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소프트웨어 현장 맞춤형 융합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순천대학교 모든 재학생이 디지털 리더로서 등 소프트웨어 관련 소양 교육을 필수로 이수도록 해 인문사회의 계열이나 예체능 계열 학생들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기초 활용 능력을 갖춘 인재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순천대학교는 점진적으로 광양만권, 전남권, 남해안권에 있는 대학들과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 및 지원하고 지역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나눔 교육 등 상생을 위한 가치 확산도 추진한다.

김종갑 전남도 전라산업국장장은 "순천대학교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선정으로 지역 디지털 전환을 이끌 핵심인재 양성의 첫 걸음을 뒀다"며 "전남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이 더욱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전라남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공모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 순천대학교가 선정됨에 따라 디지털 전환을 이끌 핵심 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순천대학교는 2030년까지 8년간 국비 150억 원을 지원받아 산업현장 맞춤형 디



6월 12일 본사사령
경기도 취재부장 이흥수

경북도 민선8기
행복경로당 3대사업
소개

전국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워크숍 경북서 개최

경로당 활성화 방안과
우수사례 공유

경북도와 경북경로당광역지원센터는 2023년 전국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워크숍을 8일부터 9일까지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인문정신문화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김동진 대한노인회 상임이사, 강희성 대한노인회 제2사무부총장을 비롯한 양재경 경상북도연합회장, 김동량 안동시지회장 및 전국 16개 시도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직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첫째 날에는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장래혁 교수의 『AI시대 인간 뇌의 특별함을 깨워라』라는 주제의 특강과 함께 분임토의, 우수사례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민선8기 행복경로당의 3대 사업인 ▲행복선생님 지원 ▲깔고미 사업단 운영 ▲밀반찬 지원사업 등 경북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경로당 활성화 사업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인천에서 온 참가자 A씨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유교책판을 소장하고 있는 한국국학진흥원과 경북도청을 방문해 전국 직원들 간의 정보공유와 소통의 장 마련으로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경북은 도내 8천261개소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경로당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자 2013년 9월부터 경상



경북도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지원하고 있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경로당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데 전국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직원 여러

분들의 헌신 덕분에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경북도는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직원 여러분과 함께 어르신들이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충남도의회, 학교폭력의 교육적 문제해결 방안 논의

신순옥 의원 의정토론회 현행 처벌 중심
사법적 해결의 한계점 지적



학교 현장에서 근절되지 못하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교육적 문제해결 필요성과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의 장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의 요청으로 8일 천안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실태 및 교육적 해결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신순옥 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정만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했다. 유성재 충남도의원(천안5·국민의힘), 주일원 천안신방중학교 학부모대표, 심순희 충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변호사는 ‘현행 학교폭력 대응 절차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현행 법상 학교폭력 대응의 문제점과 교육적 관계 회복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현행 사법 중심 해결은 가해 학생의 반성보다 비행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며, 오히려 해결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소외당하고 있다”며 “처벌·보복보다 치유 중심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를 촉진하자”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학교 근절을 위한 교권 확립과 학생 지도를 위한 제도적 보장의 필요성 ▲학생의 치유와 성장에 가치를 둔 학교 해결 필요성 ▲학폭 대응에 대한 학교 내 시스템 개편 ▲학폭 근절을 위한 관계 중심 교육 활성화 방안 등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심도 있는 토의를 했다.

신순옥 의원은 “현행 처벌 중심의 사법적 해결은 심판·소송을 통한 법적 분쟁 남발로 이어져 또 다른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교육적 해결을 통한 관계 회복과 치유 중심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 중심 회복에 대한 도교육청의 제도적 지원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정근/기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경기도교육청 5개 실·국과 도의원들이 제안한 교육정책 개발 및 지역현안 정담회 개최

의정정책추진단 윤태길·정윤경 공동단장 주재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외협력국, 교육행정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과
중점정책 및 지역현안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9일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교육정책 개발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방교육의 특수성과 교육의 전문성을 반영한 교육현안 정책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담회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의회가 발굴한 120건의 중점정책과 지역현안에 관한 사항이다.

정담회에서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미래교육지원체계 구축 ▲방과후

돌봄 등 기획조정실과 대외협력국 소관 30건, ▲노후시설 개선, ▲과밀학급 해소 방안 등의 교육행정국 소관 53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진로교육 ▲무상교육·체육복 지원 등 교육정책국과 융합교육국 소관 37건에 대해 실·국 별로 논의했다.

정윤경 공동단장(더민주, 군포1)은 “경기교육의 학생과 학교 중심의 변화를 위해 도의원들이 제안한 정책사업을 확장시켜 지역현안으로 논의하고 그 방

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으며, 경기교육정책을 만들어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태길 공동단장(국민의힘, 하남1)도 “정담회를 통해 경기교육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현장의 다양한 요구도를 반영한 정책으로,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희 의원은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해 교육부와 유기적 협력으로 조속한 법령개정이 필요하며,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진정한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석규 의원은 “과밀학급 대책으로 교육수요가 충족되지 못할 때 설치된

모듈러 교실에 대해 교육과 안전의 통합적 관점에서 학생, 학부모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의정정책추진 공동단장을 맡은 윤태길·정윤경 의원, 추진위원인 김태희(더민주, 안산2), 오석규(더민주, 의정부4) 및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대외협력국장, 교육행정국장, 교육과정국장, 융합교육국장 등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의정정책추진단은 경기도교육청 5개 실·국, 2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중점정책 및 지역현안 정책 개발 정담회’를 열고 교육현안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흥수/기자

서울시의회, 호국보훈의 달 맞아 시 재향군인회 방문 격려

박환희 운영위원장, 젊은 층 참여 확대 등의
재향군인회 활성화 방안 논의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시의원들이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시 재향군인회를 방문해 첫 간담회를 가졌다.

7일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지난 5일 구미경의원(국민의힘, 성동2)과 함께 시 재향군인회(시회장 이병무)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향군의 역할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회장단은 “국내 최고·최대 안보단체인 재향군인회가 서울시 발전과 국익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에 구미경의원은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다”는 말처럼 “국가 안보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재향군인회에 깊이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 지원 부분도 적극 검토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환희 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 안보를 위한 향군 활동에 감사드리며, 서울시의회가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꽃다운 젊음을 바친 제대군인의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위원장은 “젊은층이 향군 활동에 동참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 위촉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재향군인회는 정회원 17만 2,458명, 일반회원 205만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제대군인의 복지증진과 권익 신장을 도모하고, 취약계층 자원봉사, 6·25 참전자 생계보조비 지원, 시민안보의식 함양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최광수/기자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위, 추가 발굴 조례 보고 청취

특위가 추가발굴한 조례에 대한 집행부 질의답변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규현)는 9일 오후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추가 발굴 조례에 대해 집행부와 질의답변을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례정비특위 소위원회와 TF팀이 추가 발굴한 조례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했으며, 기관별 정비건수는 도청이 73건, 교육청이 17건 등 총 9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 사유는 실효성 없음, 현실 부적합, 상위법 개정, 용어 정비, 그 외 기타 사유로 분류했고 해당 내용에 대해 외부 자문단의 의견을 받았다. 이후 소관 상임위의 견정취 및 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정비조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규현 위원장은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 외에도 TF팀과 소위원회와 협업하여 자료 발굴하느라 노고가 많으셨다”며 “앞으로도 우리 특위는 자체 간담회 및 집행부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실있는 조례 정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7월 임시회에도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 제출조례와 추가발굴 조례에 대해 의결을 실시할 예정이며,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연구용역을 통해 정비조례를 발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례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재현/기자

공고문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평사리 산43번지는

수익사업 개발에 따라 산지내 분묘이장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고 박동열님의 분묘(이장)을

장사법 제27조에 따라 2023년 4월 10일 분묘양 공고문을

설치, 알림 보 있지만 다시 한번 이를 전국 일간지에

공고하오니 연구자님께서는 이를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도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경제부:내선 (114)	오피니언부: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홍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봉화군, K-베트남 벨리 조성사업으로 큰 그림 그린다”



리 왕조 유적지 충효당에서 K-한류문화 중심지를 꿈꾸다
다문화 가족과 함께 지방소멸을 넘어 지방시대로!

총사업비 2,000억 원 투입, 2022년부터 2027년 12월말 준공해
박현국 군수, “봉화군의 미래가 달린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만전”

이철우 도지사, 이 지역에 “베트남인들을 위한 천년주택 건설, 관광자원화”



봉화군은 지난 7일, 오후 3시, 경북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 일원에 위치한 베트남 리왕조 유적지인 충효당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박현국 봉화군수, 봉화군 관계자, 베트남 리왕조 후손 관계자, 지역 주민, 언론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K-베트남 벨리 조성사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봉화군청 신현길 인구전략과장의 진행으로 화산이씨 봉화군 종친회 이시창 사무국장 환영사, 신현길

독립왕조로써, 리 황조가 베트남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가히 독보적인 존재로 널리 알려지고 있어 추진하게 됐다.

현재 경상북도 봉화군에는 베트남 리 황조 후손의 유적인 충효당, 유허비, 재실 등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직계 종손 및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K-베트남 벨리 조성사업」은 이러한 역사적 연원을 바탕으로 「한-베」 양국을 잇는 인적·물적 네트워크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베트남 다문화인들의 요람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다.

특히나, 「K-베트남 벨리 조성사업」은 지금 날이 갈수록 인구가 감소하여 인구소멸 위기가 가속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봉화군의 지방소멸위기를 다문화국제학교, 진로연계센터, 관광을 통한 생활인구 증대를 통해 극복하기 위한 매우 필요한 핵심적인 사업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큰 사업이다.

「K-베트남 벨리 조성사업」은 부지면적 118,890㎡에 사업내용으로 3개지구로 나눠 시행된다. ▲「역사지구」는 충효당 유적지, 베트남 역사관, 일주문, 뫼꽂사원, 리 태조 동상 등 역사적인 시설을 설치하고, ▲「문화교육지구」는 베트남 문화원, 공연장, 다문화국제학교, 진로연계센터 호수공원, 수상 공연장, 연수숙박 시설, 상업시설, 종택 주거단지 등을 설치하며, ▲「휴양지구」는 다랭이논 체험장, 연꽃모양의 게스트하우스, 사당 및 정원 등을 설치한다.

이 사업 지원계획은 총 2,0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시·도비 10억 원과 시·군·구비 15억 원 포함 25억 원이 투입됐으며, 2024년에 100억 원, 2025년 595억 원, 2026년 이후 1,280억 원이 투입돼, 2027년 12월 말 준공될 예정이다. 현 사업의 추진현황은 지난 2018년 10월, 경북도청과 봉화군 공동으로 베트남타운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 2월, 봉화 충효당을 경북도 지정문화재 181호로 지정했으며, 2022년 7월, 봉화군 민선8기 공약사업을 지정하고, 2022년 12월 박현국 봉화군수가 베트남 국가주석 면담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께 이 사업에 대한 얘기를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올 5월, 봉화 베트남마을 조성사업 보완 용역사업을 추진했다.

향후, 「K-베트남 벨리 조성사업」 추진계획은 올 하반기, 국비지원 등 국가사업화를 위한 경북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K-베트남 벨리 조성사업」이 추진되면 기대되는 효과는 ▲먼저, 「한-베」 수교 30주년에 이은 「한-베」 교류의 역사적 연원을 되새김과 동시에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할 수 있고, 장기적인 양국 교류의 거점시설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다음으로 갈수록 감소되는 인구로 인해 지방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베트남 관련 관광 활성화 및 생활인구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봉화군 「베트남 자조모임」 금미선 대표는 “먼저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신 도지사님과 군수님께 무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면서 “평소 존경하는 베트남 리 왕조를 기리는 공간이 우리 봉화군에 조성된다고 하니 베트남인의 한사람으로서 감격스럽고 미약한 힘이지만 모임에서도 더욱 열정을 다해 함께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K-베트남 벨리 조성사업」에 대해 박현국 봉화군수는 “ 지방인구소멸에 직면해있는 인구3만의 농촌지역인 우리 봉화군의 미래가 달린 큰 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봉화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보고회를 마친 후, “베트남은 발전속도로 봐서 동남아에서는 가장 크게 성장하는 위상을 갖춘 나라가 될 것이다”면서 “이곳에 베트남 마을을 완전히 조성해서 여기에 많은 베트남인들이 와 계시는데, 이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천년주택 처럼 이곳 봉화지역에 천년주택을 만들어 베트남인들이 이주를 희망하면 받아 주고, 나머지는 국가사업으로 추진하여 많은 사람이 살게 해야 한다”면서,

이 지역에 “많은 사람이 살게 되면 베트남인들은 현재 1만불에서 이제 2만불 시대가 되면, 경북대구신공항이 들어서 1시간내로 빠르게 오갈 수 있어 엄청난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오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풍부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제 다문화 가족은 경북의 희망이자 미래이기에, 경북도는 맞춤형 서비스와 안정적 생활 지원으로 지방소멸을 넘어 지방시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봉화군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K-베트남 벨리 조성사업」이 이뤄지게 되면, 봉화군은 지금과 같은 인구소멸위기로부터 벗어남은 물론, 이 지역이 새로운 봉화의 관광인프라 단지로 발전돼, 새롭게 한층 더 도약된 봉화군으로 우뚝 솟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돼, 이 「K-베트남 벨리 조성사업」이 「봉화-베트남」을 연결하는 봉화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윤근수/기자



과장의 「K-베트남 벨리 조성사업」 사업 보고에 이어 이철우 경북도지사님의 질의와 관련사항에 대한 말씀에 이어 충효당 현지 순시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화산이씨 봉화군 종친회 이시창 사무국장은 환영사에서 “베트남 리 왕조 유적지에 도지사님이 찾아 주셔서 무한 영광이다”고 운을 뗐 뒤, “우리 화산 이씨 종친회에서에서도 봉화군이 추진하는 「K-베트남 벨리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 축을 담당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베트남 벨리 조성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년간에 걸쳐 경북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 일원에 사업비 2천억 원(국비 1,400, 도비 180, 군비 420억 원)을 투입해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봉화군 등이 주관해, ▲베트남 리 왕조 유적지 조성 ▲역사 교류의 길 ▲연수·숙박시설 ▲공연장 공원 ▲다문화국제학교 ▲진로연계센터 등을 조성하는 봉화군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킬 미래 봉화의 새로운 희망의 큰 그림을 그려 나갈 사업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베트남 리 황조가 1009년부터 1226년에 존재한 중국의 속국에서 벗어난 최초의



경기도 김동연지사, 남에게 가치와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술. 청년 예술인의 꿈 응원

9일 제1기 경기청년예술기획단 출범식

경기도 내 청년 예술인에게 예술정책 연구와 창작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예술기획단'이 공식 출범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기 청년예술기획단 출범식에 참석해 도내 청년 예술인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청년예술기획단은 청년 예술인의 권익 향상과 기회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과 제안을 청년 예술인이 직접 참여해 기획하는 기구다. 공연예술, 정책연구, 홍보 분야의 3개 분과, 80여 명이 올 한해 활동할 예정이다.

경기청년예술기획단의 첫 프로젝트

는 경기도가 올해 10월 개최할 예정인 '경기청년예술페스티벌'이다. 도는 청년 예술기획단이 페스티벌의 모든 것을 기획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60여 명의 청년 예술인, 대학생 등이 참석해 경기청년 예술기획단의 시작과 다짐을 알리는 '청년예술기획선언문'을 낭독하고, 실시간 공개(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 청년 예술정책에 대해 자유로운 대화를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청년들에게 꿈을 꿀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청년들이 할 수 있

는 일을,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끔 하고 싶다"라면서 "청년들의 진정한 자기실현과 자기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가치를 창출하는 보람과 행복을 느낀다면 그것을 지원하는 경기도에도 큰 기쁨이다.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삶 자체가 예술인데 그중에서도 자기실현을 통해 남에게 가치와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좁은 의미의 예술이 아닐까 한다"라면서 "청년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도 만들고 여러 가지 지원하려고 하고 있지만,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현재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최근 한국예총 임원진 14명을 만나 예술인 기회소득을 빨리 마무리 짓고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난 3월 27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4월 26일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를 입법 예고했다.

도는 6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가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 신청자를 접수해 7~8월 중 1차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홍수/기자

인천대로 지하화, 중앙투자심사 통과...27년 준공 목표

가좌IC~서인천IC 구간, 왕복 4차로 지하도로 4.5km, 총사업비 5,041억 원

인천광역시 인천대로에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공단고가교 ~ 서인천 IC 혼잡도로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옛 경인고속도로인 인천대로(가좌IC~서인천IC 구간)에 총사업비 5,041억 원(국비, 시비)을 투입해, 왕복 4차로의 지하도로(총연장 4.5km)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안부에 투자심사를 의뢰해 심각한 교통 정체 개선 등 지하도로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지하도로 건설공사 발주를 위한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조속히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일 계획이다. 2027년 준공이 목표다.

이원주 시 인천대로재생과장은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만큼 이제부터는 건설공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충남/기자

남양주시, 민원 담당 공무원 직무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민원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선 8기 시민시장시대에 걸맞은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 담당 공무원의 업무 이해도와 민원 응대 능력을 향상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고충 민원 처리제도 및 대응 기법'을 주제로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인 전문위원이 조사관으로서 경험했던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종합민원담당관에서는 민원

처리 절차와 유의 사항을 교육 참석자에게 전달하는 등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내용을 덧붙여 설명했으며, 교육 시작 전 직접 제작한 '민원 처리에 관한 안내 책자'를 배부해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손원철 종합민원담당관은 "민원 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담당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올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민원 관리를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이천시, 2023년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공모

이천시는 오는 6월 28일까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권익증진을 위해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규모는 총 3천만원이며, 신청자격은 관내 소재 비영리단체·비영리법인으로 양성평등, 여성권익향상, 기타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등 양성평등 실현과 관련된 사업으로 응모하면 된다. 이미 지역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친목 또는 영리 목적 사업, 일회성 행사, 단체 홍보성

사업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이천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여성보육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말 이천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다양한 단체와 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우수하고 참신한 사업으로 성평등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성윤/기자

구리시, 2023년 제4기 SNS 서포터즈 10명 위촉

인스타그램·블로그 등 양질의 콘텐츠 제작으로 시정 홍보 극대화

구리시는 8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4층 회의실에서 '2023년 제4기 구리시 SNS 서포터즈' 위촉식을 개최했다.

시는 2020년부터 시민들과 행정기관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다. SNS 서포터즈는 총 10명이며, 20대에서 60대까지 학생부터 다양한 직업을 가진, 시정과 SNS에 관심 있는 구리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제4기 구리시 SNS 서포터즈는 기존의 사진 위주에서 벗어나 영상촬영과 디자인이 보강된 서포터즈들로 선발됐으며, 블로그 4명, 인스타그램 6명 등 매체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년 대비 인스타그램에 3명의 인원이 추가됐다.

시는 각 매체별로 활발히 활동하고 관련 자격증 및 전문 장비를 구비한 시민들을 선발한 만큼, 각 매체 특성에 맞는 양

질의 콘텐츠가 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포터즈의 활동기간은 2024년 6월 7일까지이며, ▲시정 주요 행사 ▲구리시 관광 명소 소개 ▲월별 1회 맛집 발굴 ▲문화·축제 현장 취재 ▲시민 인터뷰 등의 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서포터즈에 대해서는 연임 의사가 있을 시 '제5기 구리시 SNS 서포터즈'로 연이어 활동도 가능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SNS는 실시간 소통을 위한 공공기관에서 꼭 필요한 홍보매체이다. 이번에 선발된 서포터즈분들이 구리시민의 눈과 귀 역할을 수행하며 진정한 있는 콘텐츠를 발굴해 주길 바란다."라며, "구리의 생생한 현장과 시정소식을 전달하기에 사명감을 갖고 활동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신상진 성남시장, 원희룡 장관에 31개 시·군 건의 긍정적 검토 요청

민선 8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국토부 장관 초청 간담회 열려

민선 8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간담회가 6월 9일 오후 2시 30분 화성시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렸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총 27건의 안건을 심의가결 처리했다.

해당 안건은 ▲성남시의 태평 물놀이장 일대 탄천 제방도로 보축 사업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구리시의 시·군 관통 교량 관리주체 일원화 ▲의왕시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기반 시설 확보 및 인주인계 협의 ▲수원시의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체계적 기능 강화 구축 ▲오산시의 무인민원발급기 처리 민원 종류 확대 등이다.

신 시장은 "건의 안건들은 중앙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하면 관

련법 개정을 건의해 추진할 것"이라면서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상호 발전을 위해 협의회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시시장군수협의회는 정기회의 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초청 간담회도 열어 시·군별 현안을 건의했다.

성남시의 건의 내용은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중별 점검 방법 상향 개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확대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부분)준공 승인 요청 등 3가지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바쁜 일정에도 경기도시시장군수협의회를 방문해 줘 감사하다"면서 "각 시·군의 현안과 건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성윤/기자



김포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및 국토부 간담회 참석

김병수 김포시장은 9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경기도시시장군수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 및 국토교통부 간담회'에 참석해 국토교통부에 광역철도 인프라 구축 등 김포시 현안 과제에 대한 긴급함과 시급성을 호소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요청의 주요 골자는 ▲철도교통 확충을 통한 출퇴근 안전확보 ▲미래 모빌리티 육성, UAM 실증 및 산업확충 ▲차별 없는 도로망·도시재생 사업 등이다.

긴급재해 상황인 김포골드라인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6월부터 시작되는 김포골드라인 증차(6편성 12칸)와 버스 수송의 예산 지원, 서울5호선 김포연장의 조속한 노선확정 및 예타면제를 촉구하고, 골드라인 양촌산단부터 인천 검단오류역까지 연결하는 김포골드밸리 철도연장을 위해 경기도 도시철도망 계획을 승인해 줄 것도 건의했다.

또한 하늘로는 '인천공항-한강2신도시-김포공항-서울도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UAM 실증노선 추가와 함께 도심항공산업 클러스터 육성지원을 요청하고 수상으로는 수륙양용버스 추진을 위해 이중적 법령규제 개선과 관광이 아닌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속도향상과 친환경 연료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그리고 제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김포-고양을 연결하는 향산대교를 건립할 것과 김포한강로를 도시계획도로에서 국지도 78호선으로 등급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혁신지구나 지역특화재생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23년 하반기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한편 국토부 간담회가 열리기 전 진행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김병수 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불소 토양기준이 너무 과도하게 설정되어 소규모 개발 시에도 기준 초과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소의 원인 및 인체 노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불소 항목의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을 건의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18건의 중앙정부 제안 안건을 포함하여 26개의 안건을 논의했으며, 115건의 현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김포시를 비롯해 경기도 31개 시·군 단체장이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문제를 협의하여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협의체이다.

최만식/기자



경기도, 지역대학교류를 통한 자치경찰제 발전 협력..7일 업무협약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청년들의 지역 치안활동 참여를 위해 경기북부 소재 대학인 경민대학교, 대진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홍지연 경민대 총장, 임영문 대진대 총장은 7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트크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 대학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관 간 상호 협력과 학생들의 현장

치안 활동 지원 협조를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북부 소재 대학과 교류 협력을 통한 청년들의 공동체 치안 활동 참여 기회 제공과 자치경찰제 인지도 향상을 위한 것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북부 자치경찰제 안착과 인재 양성을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 ▲안전한 경기북부를 위한 학생들의 현장 치안 활동 지원 ▲자치경찰 관련 학생

7일 '지역 대학 교류 업무협약' 체결

들의 학술 활동 참여 지원 등이다.

위원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에게 범죄예방 순찰, 캠페인 등 공동체 치안 활동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활동 우수 학생에게 위원회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도민 안전과 밀접한 지역 치안에 대한 주민 참여가 필요했는데 이번 업무협약으로 청년들의 적극적인 지역 치안 활동 참여가 기대된다"라며 "학생들에게 치안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홍수/기자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슬기로운 건강생활 강좌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건강·의료분야가 지난 8일 '시민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건강생활 강좌'를 열었다.

건강에 관심 있는 사전 신청자 50명을 대상으로 시청 물향기실에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건강강좌를 통해 오산시민의 건강 만족도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특히 이번 교육에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에 앞장서고 있는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동 협의체 위원, 명예 사회 복지사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그들이 건강 상태를 스스로 검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 구성원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서다.

오산시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오산시사, 오산한국병원, 공릉치과 등 기관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1부 뇌졸중의 예방과 치료(오산한국병원 과장 김형석), 2부 건강한 관절 관리를 위한 지침(오산시보건소 한의사 박유미) 강좌로 진행됐다.

전욱희 희망복지과장은 "이번 강좌가 오산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 운영의 활성화로 민관의 협력 및 소통을 통해 지역 내 네트워크 향상과 복지서비스 연계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양시현/기자



화성시, 등기소 통폐합 반대 범시민 서명운동 돌입

9일부터 화성시 범시민 서명운동 돌입...

광역등기국 통폐합 추진 반대

수원·화성 등기소의 광역등기국 통폐합 추진 소식에 화성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화성시는 9일 '수원·화성등기소 통폐합 반대 및 화성시법원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명운동은 9일 개막한 화성 뱃놀이 축제(6.9~6.11)를 시작으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유관기관과 함께 범시민 차원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화성시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수인 1만 2,094개의 기업체가 소재하고 도내 가장 넓은 지구단위계획면적(80km²)에 택지개발 및 대형 국책사업 등 개발 수요가 많아 지역 내 등기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인구 99만 대도시에 등기소 하나 없어 시민들은 가장 가까운 등기소인 오산시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이 넘게 원정을 하는 중이다.

이에 지속적으로 시가 등기소 설치를 요청해 왔으나, 설치 대신 통폐합이 거론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시는 등기업무 전산화 및 효율성 향상을 이유로 화성등기소의 광역등기국 통폐합 방침은 99만 화성 시민들의 불편함을 가중시킬 수 있어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달 중 법원행정처에 범시민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서명운동에 동참하며 "시민들의 불편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관내 등기소와 법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시 법원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화성시민의 염원을 담은 '화성시법원 및 등기소 설치 건의문'을 법원행정처에 제출한 상태이며 시법원 신설 내용을 담은 법안 또한 국회 발의돼 있다.

양시현/기자

파주시,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사 4년 연속 장학금 후원받아

관내 저소득 학생 7명에게 월 40만 원씩 지원



파주시는 9일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로부터 저소득 아동을 위한 장학금 3,36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이대영 이사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이번엔 기탁된 장학금은 관내 저소득 초·중·고등학생 7명에게 40만 원씩 1년간 지원될 예정이다.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는 2020년부터 매년 저소득 학생들의 학업증진을 위해 장학금을 후원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35명의 학생에게 총 1억 6,8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이대영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대표이사는 "지역의 미래를 빛낼 인재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미래를 응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파주시 청소년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해준 (사)한국검인정교과서에 감사드린다"라며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파주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사)한국검인정교과서는 '행복한 학교·학습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교과서'라는 비전을 가지고 양질의 교과서 공급을 통한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장학사업, 교과서 무상 기증, 불우이웃 성금 기탁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사회적 책임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한영기/기자

포천미디어센터, 경기권역 미디어센터 네트워크 공동 업무협약 체결

포천미디어센터는 지난 8일 '경기도민의 미디어 접근성 향상 및 미디어 서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경기권역 미디어센터 네트워크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시청자미디어재단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남양주 다산동 소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고양영상미디어센터, 군포시미디어센터, 부천시미디어센터, 성남미디어센터, 수원미디어센터, 안성미디어센터,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포천미디어센터, 화성시미디어센터 등 경기지역 미디어센터 10개소 운영진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경기권역 미디어센터 네트워크 공동 협약을 통해 경기도민의 미디어 접근성 향상 및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역량 강화를 위해 각 기관이 가진 핵심역량과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사업의 확대를 추진하는 등 상호 비전을 실현하고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체결 기관은 ▲경기권역 미디어센터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미디어교육 및 시민참여에 관한 상호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기타 인적·물적 지원 교류 등 미디어센터 전반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최종기 포천시 홍보담당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권역 미디어센터들이 가지고 있는 운영 경험과 자원을 교류하고 협력해, 포천시민의 미디어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천미디어센터를 통해 시민에게 더욱 다양하고 유익한 생활 속 미디어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부천시, 마약류 이용 범죄 근절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천원미경찰서·부천시약사회·BIAF조직위원회와 마약범죄 예방 협력 대응

부천시는 9일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시약사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과 마약류 이용 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용익 부천시시장, 유희정 부천원미경찰서장, 임희원 부천시약사회장, 김경호 BIAF 집행위원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참여기관들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자의

위치에서 마약류에 대한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마약관련 범죄 근절 홍보 활동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그 첫 번째 활동으로 마약류 이용 범죄 근절을 위한 애니메이션 공모전(NO! DRUGS ANYMORE)을 개최한다. 공모전 접수기간은 6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애니메이션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BIAF 홈페이지에

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 입상작은 각 기관에서 마약류 이용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부천원미경찰서는 마약 이용 범죄를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부천시약사회는 약물중독·마약퇴치 전문강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최근 마약 중독 등 마약 관련 범죄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애니메이

션은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 매체인 만큼, 이번 애니메이션 공모전 개최가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협약을 토대로 참여기관과 함께 마약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고 안전하고 건강한 부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민/기자

고양특례시, 6월 자동차세 306억 원 부과

고양특례시는 2023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288,179건, 총 306억원을 부과하고 자동차세 납부 독려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포함) 소유자를 대상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액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 12월 두 번에 나누어 부과되고,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이번에 전액 부과된다. 다만, 상반기에 신차를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6월 30일이며,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및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 납부 서비스(1644-4600), 지방세입금 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가산금 부과, 변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지방시대 이철우표 청년정책 메이커, 『경북 청년의회』 출범!



『제1기 경북 청년의회』 출범식 성황리 개최 참신한 청년정책 제시해 변화의 기대감 높여

경북도는 지난 9일 오후 2시,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다목적홀에서 『제1기 경북 청년의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청년의 힘으로 새로운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뜻을 올렸다.

청년의회는 지방시대를 선도할 청년정책 발굴 및 참여확대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구성된 청년정책자문단이다. 도정운영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청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적시에 추진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해 정책 효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ESG 경영 실천.확산을 위해 종이 없는 행사로 치러진 이날 출범식에는 청년 전문가, 창업가, 대학생, 도시군 청년지방의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청년 지방정주시대 대전환』 발표, 도시사회의 토크 콘서트, 5개 분과별 회의 등 내실 있는 논의를 하며, 지역과 청년을 아우르는 새로운 청년정책 수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청년회의의 평균연령은 35.1세로 20~30대 청년 비율이 80% 이상인 도내에서 가장 젊은 위원회며 ▲일자리경제(15명) ▲복지주거(15명) ▲교육지원(15명) ▲문화예술(15명) ▲참여소득(15명) 총 5개 분과와 자문단(도시군 지방 청년의원, 청년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2년 동안 활발한 활동을 하

게 된다. 청년의회는 출범식을 시작으로 분과별 2회 이상의 정책회의와 하반기 정책 발표회를 거쳐 현실성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 정책발표회에서 도출된 아이디어는 정책에 반영해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청년들의 창의적인 시각으로 청년정책의 변화를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초대의장은 지난날 경북청년대표 홈페이지 “청년e플림”을 통해 온라인 투표방식으로 진행해 손동광 후보(포항, 만 37세)가 최다득표로 선출됐다.

손동광 경북 청년의회 의장은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신 덕에 초대의장직을 맡게 되어 기쁘지만 한편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방 청년들이 처한 암담한 현실을 잘 알기에 수도권과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끊임없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현재 경북도는 청년들의 생애 전주기를 지원해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청년도시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며, “경북 청년의회를 통해 발굴된 참신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청년이 머무는 지방 전성시대를 반드시 현실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남해군, 무주택 지역청년에게 월세 15만원 지원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16명 모집

남해군은 오는 23일까지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남해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만19세 이상 만45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의 남해군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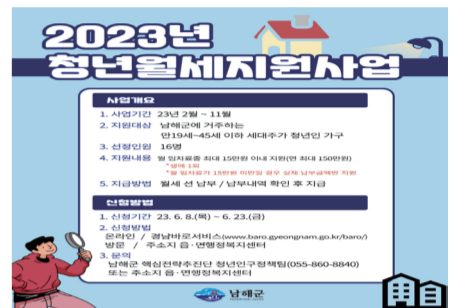
사업 참여 희망자는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월 최대 15만원 이내의 임차료를 10개월 간(2월부터 11월)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준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이하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

하며 2021년 청년월세 지원 받은 청년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비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및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와 지자체 청년 주거 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공공·고시란, 남해군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남해군 핵심전략추진단 청년인구정책팀(055-860-8840)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용준/기자



경상북도개발공사, 우기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6월 8일부터 6개 건설현장에 안전점검반 투입

이재혁 사장, “현장 건설공사 참여자들과 협력하여 건설사고 예방에 최선” 강조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우기대비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에 나선다.

특히 지난 8일에는 이 사장이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2단계) 조성공사현장’을 직접 찾아

우기대비 안전점검과 경영진 참여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동시에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6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우기대비 현장 관리실태 ▲붕괴 취약 구간 관리 ▲현장 주변 배수 및 유입수 처리대책 ▲가시설 설치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

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조치계획 수립 후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및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

이재혁 사장은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여 장마철 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하며, “현장 건설공사 참여자들과 협력하여 건설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안전을 경영 제1의 원칙”으로 매분기 경영진이 참여하는 안전점검의 날을 시행 하고 있으며, 취약시기 대비하여 철저한 안전점검을 시행 중이다.

윤근수기자

‘다시찾은 건강미소, 함께하는 구강관리’

제78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제78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이해 지난 9일(금) 오전 9시,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1층 니사금홀에서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구강보건의 날’은 영구치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어린이의 첫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과 어금니(臼齒·구치)의 ‘구’자를 숫자화해 6월 9일로 정한 법정기념일로, 평생 사용해야 할 영구치를 소중하게 관리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구광역시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7명)를 표창했으며, 구강보건의 날 기념 ‘건치 어른식 선발대회’에서 선정된 건치 어른식(4명)과

‘구강보건의 날’, 치아 건강의

중요성 강조/구강건강생활

실천 계기 마련

‘치아사랑 글짓기 및 포스터 공모전’ 당선작(58명)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구강보건 주간(9 ~ 15일)에는 시민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8개 보건소에서 구강상담, 구강용품 사용법 및 불소바니쉬도포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연극공연 및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종한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듯이 치아관리도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라며 “구강보건의 날을 계기로 치아의 소중함을 깨닫고 올바른 구강건강 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청송군,철저한 폭염 대비로 군민 안전 챙기는 발빠른 행보

윤경희 군수,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날 수 있게 최선 노력 경주”

청송군은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날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름철 폭염 대책 기간을 운영, 군민 안전을 직접 챙기는 발빠른 행보를 열었다.

폭염대책 기간에는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안동 기상청, 청송 소방서 및 관련 부서 등과 협력하여 폭염 대응을 위한 합동 TF팀을 구성하고 폭염 정보 공유와 상황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이를 통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분야별 폭염 대책을 추진한다.

무더위 쉼터(경로당) 86개소에 대한 방역 시설 점검을 완료하고, 8개 읍·면소재지를 중심으로 도심 속 열섬 현상 저감을 위해 살수차를 운영하며, 군청, 읍·면사무소, 청송군 자율방재단과 함께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통시장에서 얼음생수 나눔과 양산쓰기 등 폭염 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고령층 농업종사자, 육외 사업장 등 폭염 3대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관리 대책도 펼친다.

우선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생활 관리사 84명과 자율방재단원 200여 명을 활용하여 전화와 방문 등으로 안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고령층 농작업자에 대하여는 일일 3회 스마트 마을방송을 실시하고 자율방재단원

을 활용하여 예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수 작업을 실시하고, 가축 사육 시설에 대해서는 차광 시설설치 및 환기 시설 등을 점검한다.

육외 건설현장의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도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및 홍보물을 배부하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 관리계획과 무더위쉼터 설치 현황 등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청송새소식지, 재해문자 전광판, 스마트마을방송, 재난문자발송 등을 통한 폭염 예방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폭염3대 취약분야에 대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울진군, 2023 경북 원자력수소 산업포럼 개최

울진군은 지난 8일, 울진 덕구온천호텔에서 경북 원자력수소 개발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2023 경북 원자력수소 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울진군과 경북도가 공동 주최하고 영남일보가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손병복 울진군수, 김중권 환경에너지본부장, 이승의 영남일보 사장, 최덕규 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장, 김원석 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산·학·연 전문가와 울진군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3월 울진군은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활용할 수 있는 최적지로서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이를 발판 삼아 향후 원자력수소 산업의 역할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원자력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다지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손병복 울진군수는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원자력 청정수소의 역할 ▲ 국가산단 중심 울진 원자력 청정수소 산업 육성계획 ▲대한민국 수소경제 벨트 중추적 역할 등에 대한 기조강연으로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청정수소 산업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방안 ▲원자력수소 국내외 동향 및 전망 ▲I-SMR을 활용한 청정 수소 생산 프로젝트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 ▲수소기술개발 중장기 전략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 발표와 경북 원자력수소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9일까지 이어지는 포럼행사에는 울진 원

자력수소 생산·실증단지 협력방안, CF100의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표와 원전 관련 시설 투어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한정된 재생에너지 활용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에 어려움이 있어, CF100*(Carbon Free 100%)의 핵심 자원인 원자력, 수소 등을 산업에 활용하는 것이 탄소중립 및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울진군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내 한수원 등 공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원자력 활용 수소 생산·실증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연간 20만톤 규모의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기반과 수소 생산·유통·활용 기업의 집적화를 추진해 원자력수소 전주기 산업 육성에 전방위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포럼으로 원자력을 대표하는 울진군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원자력 청정수소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원자력수소 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북도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숲으로 나가놀자!” 제1회 경북 영유아 숲사랑 캠페인 개최

경북도는 한국숲유치원협회 경북지회와 함께 미래세대주요인 경북의 영유아들에게 숲을 사랑하는 친자연적 정서를 함양하고, 탄소중립실천 동참 등 유아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1회 경북 영유아 숲사랑 캠페인' 행사를 경산 남매공원 일원에서 9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숲유치원협회 경북지회 소속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육교사, 학부모를 비롯해 경북도·경산시 관계 공무원 등 2천3백여 명이 참가했으며, 이정률 경북도 정무실장, 윤두현 국회의원,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 이강학 경산부시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아이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숲으로 나가놀자!”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숲 날 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경북 영유아 숲사랑단 발

식 개최 ▲숲을 품은 아이들 노래제창 ▲사랑 비전을 담은 숲구호 외침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주제와 연계해 행사장 내 나눔마당! 가꿈마당! 놀이마당! 자람마당! 4가지의 숲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여러 프로그램 운영으로 숲속에서 마음껏 신나게 놀고 즐기면서 숲과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고, 아이들 스스로 자연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곡식 씨앗 뿌리기 좋다는 ‘망종’을 보낸 뒤 ‘6’은 6월에 숲에 씨앗 뿌리고, ‘9’는 9월에 뿌리는 내린다는 의미를 담아 6월 9일에 이번 행사를 개최했으며, 어린이가 숲을 체험하고 그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매년 6월 9일을 ‘어린이숲 날’로 지정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입법 계류 중에 있다.

남현주 한국숲유치원협회 경북지회장은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캠페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경북지회에서는 아이들이 자연과 하나 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유아산림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률 경북도 정무실장은 “오늘 행사를 통해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숲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숲사랑 의식을 함양시키는 계기가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경북의 더 많은 아이들이 산림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숲체험원 등 유아산림교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숲유치원협회 경북지회는 숲과 아이들의 행복한 만남을 돕고 유아산림교육 활성화를 선도하는 비영리단체로서 포항, 경주 등 7개 시군 분회에 210개 보육기관이 숲유치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천여 명의 보육교사와 1만8천여 명의 원생들이 소속되어 있다.



영유아 친자연적 정서 함양과 탄소중립실천 동참 기회 마련

윤근수기자

경주시, 시민운동장서 U-20 월드컵 거리응원 펼쳐

9일 오전 6시부터 300여명 운집해 태극전사 선전을 기원

시는 응원전 분위기 고조를 위해 태극기, 막대풍선, 음향시설 등 갖춰
경주시, 거리응원전으로 애국심 보여줘 전국에 귀감이 됐다.

경주시민들이 한마음으로 20세 이하(U-20) 한국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2회 연속 결승 진출을 기원하며 열띤 응원을 펼치는 등, 애국심을 보여줘 전국에 귀감이 되고 있다.

시민들은 9일 오전 6시부터 경주 시민운동장 필드에서 서로 하나가 돼 이탈리아와의 축구경기에서 우리나라의 선전을 기원했다.

시는 이번 응원전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태극기, 막대풍선, 나팔 등의 응원 도구를 비롯해 응원단장과 치어리더, 음향시설 등을 마련했다.

경기 시작 1시간 전부터 가족·친구 단위 응원객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더니 어느새 300여명의 시민들이 대형 전광판 앞에 운집했다.

특히 이날 응원전에는 주낙영 시장, 김석기 국회의원, 이철우 의장을 비롯한 여준기 체육회장, 시·도의원들도 이날 참여해 목이 터져라 함께 응원했다.

이날 황성공원 시민운동장 일대는 축구경기가 끝날 때까지 시민들의 환호 소리로 뒤덮이며 열광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날 축구는 경기 전반 14분 이탈리아가 먼저 한 골을 넣었는데 이어 이승원(강원)의 페널티킥 골로 1대1로 맞섰지만 후반 41분 상대에게 프리킥골을 헌납해 2대1로 아쉽게

경기를 내줬다.

경기 종료 후 비록 승리를 하지 못했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2회 연속 4강 진출에 만족하며 아쉬움을 달랬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축구 준결승전을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응원전을 마련했다”며 “비록 결승진출에는 실패했지만 뜨거운 응원전을 펼친 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며, 하반기부터 개최될 화랑대기 유소년 축구대회, 전국 초등축구 왕중왕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타용/기자



경북도청 이전 결정 15주년 &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기념 시민 화합 대축전 개최

안동 역사에 길이 빛날

100년 초석 마련 ‘전 시민과 기념’

권기창 안동시장, “희망 안동 건설을 위해
시민 여러분과 손 맞잡고 힘차게 전진”

안동시가 경북도청 이전 결정 15주년과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기념, 지난 11일(일) 18:40, 낙동강변 둔치 다목적광장에서 시민 화합 대축전 행사를 개최했다.

안동 100년 발전의 초석이 될 도청 이전 결정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의 의미를 되새기며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하의 장을 연다. 특히, LG헬로비전의 ‘헬로 콘서트 좋은 날’ 녹화와 연계해 장민호, 김희재 등 정상급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2008년 6월, 27년의 긴 여정 끝에 성공한 경북도청 유치는 단순한 청사 이전을 넘어 경북의 문화와 혼이 제자리를 찾은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6년 신청사 이전과 함께 조성된 경북도청 신도시는 이제 인구 2만 6천여 명의 경북에서 가장 젊고 스마트한 도시로 자리매김

했다. 앞으로 경북의 중심 도시로서 북부권 시군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며 신성장 거점도시로 발돋움해나갈 전망이다.

또한, 30여 년간 시민들의 염원이었던 안동국가산업단지 유치는 글로벌 바이오·백신 허브 도시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향후 7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4조 원이 투자되고, 이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는 8조 원, 고용창출은 3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청병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의 보루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위대한 시민들의 간절함이 일궈낸 역사적 쾌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다”라며, “활력 넘치는 성장도시, 함께 만드는 희망 안동 건설을 위해 시민 여러분과 손을 맞잡고 힘차게 전진 또 전진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청송사과 대한민국 사과의 자부심!

청송사과의 첫 경매가격은 그 해 사과 시세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10년 연속 수상에 빛나는 청송사과.
수출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K-푸드의 자존심, 청송사과.
사과는 빨갰다는 통념을 깬 혁신 브랜드, 청송황금사과 ‘황금진’.

청송사과는 대한민국 사과의 자부심, 그 자체입니다.

‘시민과 함께 부산 먼저 15분 도시로’

「15분도시 비전투어 시즌2」, 두 번째 서구편

부산시는 오는 13일 오후 3시 30분, 서구청 다목적홀에서 ‘15분도시 비전투어 시즌2’ 두 번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5분도시 비전투어 시즌2’는 ‘시민과 함께, 먼저 15분도시로’ 표어하, 15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시민공감 사업을 발굴하고 실현방안을 각계각층 지역 인사들과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지난 3월 사하구를 시작으로 16개 구군 대상 추진되고 있다.

특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주민들이 직접 지역문제 해결과 15분도시 조성을 위해 제안한 100억 원 규모의 2개 기획과제(프로젝트)에 대해 투표로 우선 과제를 선택한다. 시는 선정된 과제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사업비 추정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 예산 조달 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서구청 신관 다목적홀에서 부산시장, 구청장, 공공기관장, 지역기업인,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 ▲정책보고(브리핑) ▲토론 ▲투표/발표 등 순으로 진행되



며, 서구에서 제안된 두 개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서구 1,800계단 이음길 조성사업 해당 사업은 산복도로 고지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손질이 시급한 1,800여 개의 계단 도로와 골목길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그간 좁고 가파른 계단길로 이동마저 쉽지 않으며, 특히 고령자의 경

우 안전사고 위험도 있었다.

이에 15분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지대 및 골목길 보행환경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골목길 재생을 통해 공동체(커뮤니티)를 위한 연결공간으로 조성하여 문화적 원형은 보존하되, 고지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수직형 엘리베이터 설치사업도 병

행 추진할 계획이다.

■ 구덕문화공원 숲치유정원 조성사업

꽃마루에 위치한 구덕문화공원은 교육역사관, 전통문화체험관 등 다양한 전시관과 폭포, 연못, 꽃길, 산책길, 편백 숲 등 자연생태문화를 갖춘 시민휴식 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최근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인 ‘들락날락’도 개관하는 등 지역 생활권의 거점 공간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다만, 일부 공원 내 저활용 및 노후화된 시설들이 있어 이러한 시설들의 활용성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치유 공간으로 개축(리모델링)하고자 한다. 특히, 이미 편백숲이 조성된 구덕문화공원의 장점을 살려 숲치유센터를 조성하고, 어린이 복합놀이시설을 추가로 만들어 명실상부 서구를 대표하는 거점 공간을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우리동네 15분 생활권 조성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시민들이 직접 우선과제를 선정함으로써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송종진/기자

박형수국회의원·영양군 2024 국비예산정책협의

영양군과 국민의힘당이 원팀으로 힘 모아

영양군은 지난 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수 국회의원과 2024년 국비 예산 확보와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정책협의를 가졌다.

이날 협의는 오도창 영양군수, 박형수 국회의원, 김석현 영양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군의원과 국실과소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협의에서 ▲양수발전소 영양군 유치 ▲안동-영덕간 동서철도 구축 ▲남북 9축고속도로(영천-양구) 조기건설 ▲31번국도 영양진입구간(감천1리~현2리) 터널화 추진 ▲지방도 918호선 국지도 승격 및 선형개량 ▲노지배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추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심도있는 협의가 진행됐다.

또한, ▲화매지구 농촌융수이용체계재편사업 ▲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암 연당지구) ▲영양 밤하늘 청정 에코촌 조성사업 등 9개 주요 국비 예산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 부처별 예산심의 대응단계에 앞서 국회와 지자체가 적극 협조하여 대응키로 뜻을 모았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군의 생존이 걸린 여러 중점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과 당이 힘을 합쳐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덧붙여 “전 국민이 희망하는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형수 국회의원은 “지금 이 소멸위기에 직면한 영양군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영양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예천 남산공원 명소화 종합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미디어아트, 체험 인프라 조성 등

공원 명소화 및 예천읍 도심권 관광거점 구축

김학동 예천군수, “민선 8기 군정 과제인

‘일상 속 여유 매력 예천’ 구현

예천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예천 남산공원 명소화 종합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과업은 남산공원 내 미디어아트 등 실감 콘텐츠를 비롯한 숲속 공간 활용 체험형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종합 기본계획 수립으로 지난해 12월 경상북도 미래전략 용역과제로 선정돼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특히, 도심 내 숲속 공간인 예천읍 남산공원을 지역주민에게는 휴식·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외부 방문객들에게는 기존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주변 자원들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도심권 관광거점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김학동 예천군수를 비롯한 경상북도 미래전략기획단, 관련 부서장 및 팀장, 공공건축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남산공원 명소화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아이템 도출 및 사업계획 구체화 등 단계별 용역 진행 상황 및 일정을 용역사로부터 보고 받고 실행력 높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용역은 한천, 개심사지오층석탑, 폐선부지와 그 중심인 남산공원을 예천군 관광의 허브로 작용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이라며 “경상북도와 내실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를 통해 민선 8기 군정 과제인 ‘일상 속 여유 매력 예천’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달성군시설관리공단, 1사 1촌 농촌 일손 돕기 사회공헌활동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은 지난 9일 최근 현풍읍 원교리 일원 양파 농가에서 공단 임직원들이 참여해 양파 수확 지원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손 돕기는 외국인 인력 수급문제와 농촌 고령화로 인해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등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했으며, 직원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양파 수확과 정리 작업에 성의를 다했다.

한편, 공단은 1사 1촌 자매 결연을 맺은 현풍읍 농가에 3년째 지원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앞장서왔다.

김정화 이사장은 “우리 지역사회는 농촌 일손부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공단은 지역 농가에 더욱 힘을 보탬 것이며, 동농화합과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농업인·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

유통 혁신

‘올바른 유통위원회, 출범을 통한 유통 구조 혁신과 함께 수급예측 정보시스템 구축 농협을 경쟁력 강화로 농 축산물 유통 대변화

디지털 혁신

농업인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통합 플랫폼 개발과 디지털 농업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농촌 지능화 등 디지털농업 강국 실현

조직문화 혁신

조직 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과 '경청'을 실천하고 창의적 생각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소통하는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



영덕군보건소, 제78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 펼쳐

지역주민들 구강 검진·상담 지원하고 홍보활동 전개

영덕군보건소는 제78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시 찾은 건강미소, 함께하는 구강관리'라는 주제로 지난 8일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구강보건의 날은 국민의 구강건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만 6세에 나오는 영구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46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있으며, 첫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중요성과 여금니(구치: 臼齒)의 '구'를 상징화해 매년 6월 9일로 정해졌다.

이에 영덕군보건소는 치과과중보건의사와 치과위생사를 대동해 강구오일시장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지역주민

과 상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상담을 시행했다.

또한 군민의 건강한 구강관리를 위해 올바른 칫솔질 방법, 올바른 틀니 사용법과 보관법, 구강 위생용품 사용법 등을 교육하고 이를 안내하는 리플릿과 구강 건강관리를 위한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박인숙 건강관리과장은 "이번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통해 많은 군민이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해 구강건강이 심각해지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스스로 관리하는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과 지원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의성군, 경북도 농식품 수출정책평가 7년 연속 수상

김주수 의성군수, "다양한 지원사업 적극 추진, 수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

의성군이 경상북도 주관 '2023년 농식품 수출정책 우수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수상을 통해 의성군은 2017년도에 대상 수상을 시작하여 23년도에 우수 수상까지 7년 연속 시군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수상을 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번 평가는 경북도가 시·군을 대상으로 수출달성도, 수출기반 조성, 해외시장개척 및 마케팅, 수출정책 참여도를 기반으로 시군의 노력과 관심도를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다.

의성군은 사과, 복숭아, 딸기, 쌀, 주류, 김치, 건강식품 등을 해외 20여 개국에 수출해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2022년도는 전전년대비 72%, 전년

대비 22% 증가한 1,289만불을 달성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조성에 노력한 결과 대자연농업회사법인(복숭아)과 서의농협(가바쌀, 친환경쌀)이 경상북도 예비수출단지로 지정·운영되었으며, 스마트창업농으로 구성된 의성청년딸기 공성체는 의성딸기를 홍콩으로 첫 수출을 이뤄내어 대표적인 청년창업농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안정적인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여건 마련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구미시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아야!

구미시는 9일 장애인체육관에서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주관으로 전국 교통장애인 회원 및 관계자 1,200여명이 참석해 '2023년 교통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구미시립합창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1부는 교통장애인권리 선언문 낭독, 교통장애인 복지증진 유공자를 대상으로 시상식이 이어졌고, 2부는 코미디언 심형래의 사회로 평양아리랑 예술단의 축하공연 등 다채롭게 꾸며졌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과 태도가 다를 수 있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바란다"며 "시에서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21년 교통장애인의 날 선포식을 시작으로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6월 10일 '교통장애인의 날'은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낮았다가 높아지는 시점인 '6월'과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10대 중과실을 지켜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 발생을 방지하자는 의미인 '10월'로 제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

김동현/기자

부산시, 「국민의힘 부산시당과의 정책간담회」 개최

박형준 시장, "국회의원과 상시 소통을 통해 부산의 변화 이끌어 내겠다"

부산시는 지난 9일 오후 4시, 시청 7층 영상회의실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가덕도신공항 조속 건설 등 시정 현안 해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민의힘 부산시당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하고,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는 전봉민 시장위원장 직

무대행을 비롯한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대상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가덕도신공항 조속 건설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통합 저비용항공사(LCC) 본사 부산 유치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안전도시 부산(부산 도시철도 노후 전동차 교체)을 통한 안전 강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어린이 통학

로 종합 안전대책, 원전 방사성폐기물 처리대책 관련 지역 소통) 등으로, 시의 주요 현안과 주민 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의 변화를 위해서는 시와 지역의 정치권이 시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과 지역 현안에 대한 공감,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더 좋은 미

로 도약하기 위해 부산지역 의원들과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지역 현안을 촘촘히 논의하여 부산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시민 안전은 시민 행복을 이 루기 위한 필수조건이라 강조"하며, "모든 시민이 어디서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중진/기자

영주시, 박형수 국회의원과 2024년도 국비 예산 정책 협의

박남서 영주시장, "활력 넘치는 경제·관광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재도약 위한 영주시 주요 사업,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부탁해

영주시와 박형수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시청 강당에서 2024년도 국비 예산 확보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협의회의에는 박남서 영주시장, 박형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심재연 영주시의회 의장, 경북도의원, 시의원, 영주시 국소장 및 관련 실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현안 및 국비 건의사업 등 총괄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 토론과 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영주시는 ▲영주댐 레포츠시설 조성사업 ▲소백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조성사업 ▲영주댐 수생태 국가정원 조성 ▲영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국도28호선 대체우회도로(적동~상망) 건설 ▲영주댐 준공 등 현안사업을 공유하고 영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 ▲가흥공원 전망대 설치사업 ▲안향 선성 성지원 조성사업 ▲영주 무성마을 종합정비계획 ▲영주 스포츠컴플렉스 조성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 ▲국도5호선(풍기 IC) 연결도로 개설 ▲영주댐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영주시가지 일주 보행로길 설치사업 ▲가축분 펄릿가공 축분자원화 ▲풍기정수장 개량사업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영주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활력 넘치는 경제·관광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한 영주시의 주요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회의원은 "건외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영주 발전을 앞당길 주요 현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워크숍 개최

'화합! 충전! 도약!'

박성수 국장 "지방시대, 경북이 모범이 돼, 경북을 새롭게 할 가족정책 추진"



경북도는 지난 9일,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에서 "화합! 충전! 도약!"이라는 주제로 경상북도 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종사자 사기진작과 센터 간 정보공유를 통한 가족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변화하는 가족형태에 맞춘 실무자 역량 강화와 시군 간 업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1부 행사는 유공자 표창(수상자: 경주센터 이승희, 경산센터 이하영,

영양센터 곽재경, 성주센터 김종재, 예천센터 정현진)과 '실무자의 다문화감수성 향상'을 내용으로 하는 특강을 실시했으며 2부는 종사자 역량강화 사기진작 한마당으로 미니 명랑운동회, 체력부스 운영 등을 진행했다.

2006년 가족센터가 운영된 이래 처음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은 도내 가족센터종사자 4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고민하고 함께 행동하는 공감의 장이 되었다.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새 정부의 화두는 지방시대며, 경북이 먼저 모범이 되어 가족의 힘으로 경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가족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사회가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가족센터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중요해질 것"이라며 "가족정책 서비스의 최일선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탄소저감형 저가열 아스팔트 기술개발 협력

기존 가열 아스팔트 생산 대비 30°C 낮춘 친환경 기술개발 아스팔트 생산 시 대기오염물질 감소 및 생산연료 절감 공단 시설 활용 테스트베드 운영으로 연구개발성과 상용화 목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지역 우수 중소기업인 (주)윤성산업개발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탄소저감형 저가열 아스팔트 기술개발에 동참한다.

지난 9일(금) 오전,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소재인 (주)윤성산업개발 본사에서 체결한 이번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는 간선도로에 저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테스트베드 구간이 운영된다.

(주)윤성산업개발은 가열아스팔트와 저가

열 아스팔트의 성능을 비교하고, 공단과 함께 저가열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공용성 평가(아스팔트 포장의 균열, 소성변형, 평탄성 등의 상태를 조사하여 사용자가 얼마나 편리하고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를 실시해 녹색기술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국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아스팔트 포장은 아스팔트와 골재의 혼합 과정이 160°C 이상에서 이뤄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및 악취 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 및 온실가스 저감 등을 위해 기존에 개발된 저가열 아스팔트 첨가제는 물성변화로 인해 박리현상이 발생해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주)윤성산업개발은 박리방지 가능항상과 저가열 상태에서의 성능확보를 위한 하이브리드 구조 설계 방식으로 기존 아스팔트 첨가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친환경 저가열 아스팔트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최윤규 (주)윤성산업개발 대표는 "전국 최초로 저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성능 테스

트 시작된다"라며 "저가열 아스팔트가 상용화될 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도심의 공기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문기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을 테스트베드로 개발해 지역 우수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공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전남도, 군-민간공항 통합이전

무안서 군공항 이전 바로알기 설명회...새 전환점 맞아

공론화 본격 나서



전라남도가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는 도내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 광주 군공항 이전 바로알기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공론화에 본격 나섰다.

전남도는 8일 무안에 있는 전남개발공사 대강당에서 무안과, 남악 인근 주민 등 도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목포대학교에서 개최된 전문가 토론회, 전남사회단체연합회에서 주최한 강연회 등

지역사회 주도로 논의가 진행됐고 전남도가 주관한 설명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설명회에선 최용선 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이 '광주 군공항 이전 바로알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최용선 전 행정관은 강연에서 "군공항 이전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지금이 특히 중요하다"며 "2029년 부산 가덕도 신공항, 전북 새만금국제공항 개항에 이어 2030년 대구경북통

합신공항이 개항될 예정이기 때문에 조속히 무안국제공항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사업에 비추면 앞으로 전남과 광주 간 정치적 합의와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며 "소음 피해를 유발하는 '군공항 이전'이라는 접근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 '거점공항'을 무안에 개항한다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가 광주시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 "공항 이전은 특정 기초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남의 미래 100년을 이끌 성장동력이자 서남권 거점 공항을 육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훨씬 주도적인 전남도의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안공항 항공특화사업단지(MRO)가 조성되고 향후 저가항공사(LCC) 등 민간항공기뿐만 아니라 군공항 이전에 따른 군 항공정비 물량까지 민간으로 이전되면, 항공산업이 직접화 돼 무안공항 일대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전 행정관은 또 "군 공항 이전 시 남악신도시나 목포 원도심 일대에 소음피해가 발생한다는 일부 우려는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며 "한국소음

진동학회 대구공항 소음영향지역 설정 연구(2016년)를 분석한 결과, 공항 주변 일부 지역에만 소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강연 후 질의 응답시간에 참석자들은 전남도와 무안군이 대규모 주민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5월 무안사랑모임에 이어 1일 전남사회단체연합회 등 통합을 지지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져 지역 주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가 과거와 달리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로 지역 내 분열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도민 통합과 서남권 발전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5월 나주역, 함평, 무안, 목포, 순천 등에서도 군 공항 이전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16일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포럼을 개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군 공항 이전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종배/기자

윤병태 나주시장 "한국에너지공대, 국가 에너지 안보 지킬 인재 양성대학"

호남 특혜 아닌 국가 에너지산업 경쟁력 확보 위해 매우 중요

정부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금 축소 움직임에 대해 윤병태 전남 나주시장은 "한국전력 적자 경영을 이유로 한 출연금 축소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국가적 필요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설립된 대학을 법에 따라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병태 시장은 9일 오전 광주MBC라디오 생방송 '시사 인터뷰, 오늘'에 출연해 "한국에너지공대는 단순 호남이 잘 살리고 만든 단순 대학이 아니다"며 "에너지 분야에 취약한 국가 산업 경쟁력 확보와 에너지 대전환 시대 국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설립된 인재 양성대학"이라고 말했다.

윤 시장은 "한전 적자 구조는 근본적으로 에너지 수입 가격이 상승하는데 비해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그동안 판매 가격 인상을 억제해왔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전 적자 규모가 31조 원에 이르는데 반해 올해 한전의 에너지공대 출연금 계획 규모는 1588억원 수준"이라며 "대학설립 과정에서 불가피한 예산 지원을 한전 적자 원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재차 꼬집었다.

이제 막 개교 2년차 임에도 각종 논란에 휩싸인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바람도 피력했다.

윤 시장은 "대한민국 에너지산업 분야 기술 격차, 인력 부족 문제는 세계 수준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 있다"며 "재학생과 교직원 이 한마음으로 학업과 연구 활동에 몰두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대학이 이런 상황에 놓여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토로했다.

특히 "에너지공대가 수도권이나 영남권, 충청권에 있었어도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겪었을지 생각이 든다"며 "정치권과 지자체, 한전이 합심해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보

다 건설적 방안을 마련해 갔으면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교직원 보수 과다 지급 등 대학 측의 방안 운영 의욕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윤 시장은 "타 대학에 비해 교직원의 보수가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수도권이 아닌 지방 생활에 있어 불이익이나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은 지자체가 나서서 지원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이를 위해 전라남도 나주시는 10년 간 매년 100억원씩을 출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서 나온 내용이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의사 모집이 안돼 연봉을 3억원으로 대폭 올렸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느냐"며 "교직원 보수가 방안 경영인 것처럼 과도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별법 조항에 따른 국가 지원도 촉구했다.

윤 시장은 "에너지공대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에너지공대를 운영할 책임이 있다"며 "해당 법 5조에는 산업부 장관과 한전은 대학을 지원·육성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공대는 2025년까지 학생, 교원, 시설 등 편제를 완성할 계획으로 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가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며 "국가적 필요와 결단, 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시장은 "에너지공대는 작년 신입생 107명 중 104명이 재학 중으로 신설대학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개교 2년차 임에도 독일 프라운호퍼, 미국 MIT,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등 세계적인 연구기관들과의 협업을 추진 중인 에너지공대가 꼭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제때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남원시 생활인구 10만명 유치 천명

남원시 생활인구 10만명 유치 선포식 개최

남원시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생활인구 10만명 유치 천명을 위한 선포식을 9일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은 시장, 부시장, 간부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작지만 강한 연결, 생활인구로 활력있는 남원'을 비전으로 삼고, 2024년 생활인구 10만명 유치를 시장의 최우선 목표로 추진할 것을 다짐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는 앞서 정주인구 뿐만 아니라 남원과 관계가 있는 연구자, 출향인, 정책고객, 고향사랑기부자, 방문자 등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을 생활인구로 유입하고자 22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남원 디지털 관광주민증 활성화 ▲지리산권 위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재방문 활성화 ▲남원시 명예시민증 확대 및 적극적 인센티브 부여 ▲외국인 유학생 위킹 홀리데이사업 등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대상 분기별로 생활인구를 선정하여 교부세 지원 및 생활인구 특

성에 맞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모든 정책 수립 시 생활인구 유치를 목표로 집중 추진하여 2025년에는 15만명, 2026년에는 20만명 유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생활인구 활성화 및 정주인구 환경개선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81억원)과 인제학당(200억원)을 건립하고 있으며, 체류형관광지 조성을 위해 합파우아트밸리(3,000억원)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귀농·귀촌인 및 은퇴자 주거타운 78호를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220억원)을 필두로 가축유통자원부지 활용 5,000세대 은퇴자 마을 조성하고 농촌지역 7개면(수지, 주성, 덕과, 대산, 금지, 대강, 산동)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농촌협약(387억원) 공모 선정을 통해 인구



소멸위기를 넘어 경쟁력을 강화하고 남원의 미래를 키우는 큰 그림을 완성시켜 가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시장의 최우선 방향을 인구증가와 지역경제회복으로 두고 모든 시책을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

구 유치 등 인구 증가 정책으로 개편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인구 활력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남원시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완도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건립 '소비 활성화 기대'

'완도자연그대로' 농특산물 안정적인 출하, 가공, 유통 체계 마련

전남 완도군에 농특산물 복합유통센터가 건립됐다.

군은 지난 8일 '완도자연그대로' 농특산물 출하, 가공, 유통을 책임지는 복합공간인 완도농협 농특산물 복합유통센터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은 신우철 완도군수와 윤재갑 국회의원,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 군의원, 사회기관단체장, 농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 보고와 감사패 전달, 테이프 커팅 등이 진행됐다.

'완도농협 복합유통센터'는 2021년도 군 특 사업으로 '농촌차원 복합 지원 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20억(국비 10억, 군비 5억, 자부담 5억)을 들여 완도를 축성리 농공단지 4,241㎡ 부지에 복합유통센터, 저온 저장고, 사무동 등을 갖추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농특산물 복합유통센터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으로 농특산물 판로를 더 넓힐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면서 "군에서는 철저한 품질 관리로 더 안전하고 신선한 농특산물이 국민 식탁에 오르고 '완도자연그대로 농특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완도농협과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미남 완도농협조합장은 "유통센터가 완도를 대표하는 산지 유통 조직으로서 자연그대로 농법으로 생산한 농산물 취급 확대와 저장 및 상품화 시설 구축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완도 농특산물의 브랜드화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양영율/기자

순천시, 여름철 박람회장 등 식품안전관리 강화

박람회장 식음료 안전관리 지원 등 식품사고 예방 철저



순천시가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을 대비해 식중독 등 식품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맞이 위해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관광지 및 숙박업소 주변, 주요산권 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지도도를 실시하고 있다. 4월 박람회 개최 이후부터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총 41명을 위촉하여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시는 정원박람회장 내 식음료안전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식품위생담당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상주하며 박람회장 식음료시설에 대한 일일 위생점검과 지도, 조리식품 수거검

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부터 순천시 식품위생과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위생 지도 점검에 대한 업소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시는 정부정책 등 최신 정보와 함께 위생점검 사전 예고제를 운영해 업소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식중독 발생 시 대규모 환자가 생길 수 있는 집단급식소와 관련 업체의 정기적인 위생점검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소규모 어린이집 등 영양사가 없는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영양관리도 지원하고 있다.

시는 7월부터 순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장애인과 노인의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8월까지 시민이 자주 구입하여 섭취하는 카페 열음, 빙수, 콩국 등을 집중 수거해 검사하고, 10월까지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아동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집단급식소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의 식품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배달음식점, 무인 식품판매시설, PC방 등에 대한 식품안전 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전국적으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학원가 무허가 식품판매 점점과 유흥업소 등 마약류 범죄 경찰 합동 점검도 추진하고 있다.

심기섭 순천시 식품위생과장은 "기온이 1도 오르면 식중독 발생 비율이 47%로 오른다는 전문가의 보고가 있다. 6월부터 9월까지는 식중독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기간이므로,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관계자 및 일반 가정에서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을 위해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승준/기자



전북도 군산 참흥어,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시행

체계적인 자원관리로 지속가능한 어업 및 어업인 소득 증대 기대

군산 참흥어가 근해연승·자망어업 총허용어획량(TAC)에 포함될 전망이다. 9일 전라북도도에 따르면 해수부는 올 7월 부터 2024년 6월 어기까지 흥어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해역을 서해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도 배정 물량은 협의 중이다.

현재 참흥어 총허용어획량(TAC) 적용지역은 전남 신안군 해역과 인천 옹진군 인근 해역 2곳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군산 지역도 어획량을 제한받게 됐다. 이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관리와 군산 참흥어의 가치 향상이 기대된다.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고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수산자원관리 제도다. 해수부의 서해안 전역 흥어 TAC 설정은 흑산도와 대청도 어민들의 주장에서 촉발됐다. 수온 영향 등으로 최근 3~4년 전부터 군산 어청도 인근 해역에서 많은 흥어가 어획('20년 637톤, '21년 1,417톤, '22년 1,108톤) 되고, 위반량도 '21년에 전국 45%로 전국 1위를 차지했지만 어획량 제한을 받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전라북도와 (사)서해근해연승연합회(회장 임세중)는 참흥어 자원관리 및 소득향상을 위해 여러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참흥어 위반가 안정이 필요하고, '참흥어 TAC 서해 전해역 적

용과 전 업종 확대 시행'에 의견이 모였고, 도는 총허용어획량 참여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또 타지역과의 가격 차이에 따른 참흥어의 할당량 조정과 서해특정해역 입어 허용 내용도 함께 건의했다. 도는 이같은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득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재용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올해 참흥어 TAC 참여를 계기로 수산 선진국처럼 수산자원을 엄격히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지역의 흥어잡이 어선은 16척이다. 한 가닥의 기다란 줄에 일정한 간격으



로 가짓줄을 달고 가짓줄 끝에 낚시를 단 어구를 사용해 낚시에 걸린 대상물을 낚는 근해연승어업 11척과 기다란 사각형 그물을 고정하거나 물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도록 하면서 대상물이 그물코에 걸리거나 낚히도록 하여 잡는 근해자망어업 5척이다. 이남출/기자

신안군, 배로 가는 1004만 송이 수국축제 준비 한창

6월 16일부터 10일간 신안군 도초도에서 '섬 수국축제' 개최

신안군은 수국정원과 환상의 정원으로 유명한 신안군 도초도에서 '섬 수국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배로 가는 1004만 송이 수국축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6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10일간 신안군 도초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축제 기간 수국정원과 환상의 정원(명품 팡나무 10리길)에서 토양의 산도에 따라 다양한 색상을 연출하는 형형색색의 탐스러운 1004만 송이 수국을 감상할 수 있으며 올해 총면적 671㎡ 규모의 수국센터(2층)를 개관하여 방문객의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1층 전시실에 수국을 주제로 한 유명 작가의 작품을 전시할 계획이다.

2020년 전남도 도시숲 평가 대상, 2021년 산림청 가로수부분 우수상을 수상한 환상의 정원은 전국에서 기증받은 사연 많은 팡나무 716주가 장관을 이루고 있고 '자산어보' 촬영장도 수국정원 인근에 있어 관광

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신안군은 2022년 10월 한국기록원으로 부터 지방자치단체 관내 단위 연적당 최다 수국 보유를 인증받았으며 기네스북 등재도 추진할 예정으로 명실상부 대한민국 수국의 섬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김경환 추진위원장은 "수국정원을 찾아 오신 모든 분들이 1004만 송이 아름다운 수국을 만끽하며 추억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신안군 관계자는 "섬에서 치러지는 행사인 만큼 관광객들이 차를 놓고 방문하셔도 불편함이 없도록 선박과 순환버스 운행을 대폭 증편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여 섬 수국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진도군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활발 운영

110명 주민 참여...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개인별 맞춤형 건강 관리

진도군 보건소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건강관리 모바일 앱을 통해 보건소 전문가가 비대면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주민 110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스마트폰 터치와 모바일 앱을 활용해 진행된다.

헬스케어팀 5명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코디네이터로 구성된 전문가들을 통해 모바일 참여자의 건강을 모니터링해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참여자 중심의 적극적이고 자발적

인 건강증진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식사일기, 운동일기 등을 통한 영양실천·신체활동평가 등을 실시한다.

또한 전문가 집중 상담을 제공하고 건강이 좋아진 참여자에게는 진도아리랑상품권 증정을 통해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과 건강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진/기자



구례군 섬진강 대숲 길 "수국단지 조성"

쑥쑥 자라는 죽순과 함께 피어나는 수국꽃, 새로운 볼거리 제공

전남 구례군은 구례를 원방리에 위치한 '섬진강 대숲 길'정자 옆에 수국 단지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수해로 대나무가 고사한 자리에 총 5종 3,100여 개의 수국을 식재했다.

수국 단지는 기존에 조성된 대나무 숲길과 어울려 방문객들의 눈을 즐겁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구례군 대표 관광지인 섬

진강 대숲 길에 새롭게 조성된 수국단지의 꽃향기와 함께 구례에서만 느낄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수국은 낙엽성 관목으로 다양한 색채를 가진 싱그러움 여름꽃이다. 꽃의 색은 토양의 산성도(pH)에 따라 분홍색이나 푸른색을 띤다. 개화 시기는 6월부터 7월까지이며, 1~1.5m까지 성장한다.

김성현/기자

"장흥군,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해결 나섰다"

장흥군은 9일 아동과 청소년의 과의존을 해결하기 위해 전남스마트쉼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보다 현명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전남스마트쉼센터는 모든 연령대의 지역민들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을 해소하고 건강한 여가 문화를 이끌어 가는 전문기관이다.

최근 스마트폰 대중화와 미디어의 다양화로 아동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예방교육 및 상담활동을 통한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할 방

침이다.

스마트폰 의존이 지나치거나 양육자와 문제가 있는 가정에 직접 방문을 통해 자녀의 지도방안, 양육자의 고민 해결을 돕는다.

임신옥 스마트쉼센터 소장은 "스마트폰 과의존이 전 연령대에서 많아지고 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효과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소향 노인아동과장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시대인 만큼 효율적으로 알맞게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번 협약으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화순군, 로컬푸드 참여 농가 교육 실시

로컬푸드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유통 활성화 추진



화순군은 6월 1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적벽실)에서 로컬푸드 참여 농가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구북구 화순군수, 군의원, 4개 로컬푸드 직매장 농·축협장(화순읍, 능주, 도곡, 축협) 등이 참석하여 로컬푸드 농가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화순군은 작년 12월 4개 농·축협과 로컬푸드 협력 협약을 맺고, 지역 내 안전한 농산물과 고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군과 농·축협이 맺은 로컬푸드 협약에 따라 진행됐다. 연 1회 각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받아야 했던 보수교육을 통합하여, 화순군이 진행하는 교육을 1회 수료하면 모든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보수교육을 인정하도록 농가들의 편의를 반영했다.

교육 시작 전 민선 8기 주요 사업 및 성과 PPT를 화순군수가 직접 발표하여 화순군의 군정 내용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로컬푸드 주요 교육으로는 화순팜 소개 및 홍보, 푸드플랜 이해, 로컬푸드 선진사례, 농산물 안전성 교육 등 4건을 실시했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지속적인 군과 농·축협의 협력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라며, "로컬푸드를 통해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알리고, 로컬푸드를 출하하는 농가들에 적극 지원하여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윤경호/기자

강진군, 인구감소 대응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생활인구 유입, 귀농귀촌 정주민 증가로 강진 인구 5만 명 달성 도전

강진군이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제1회 강진군 인구감소 대응 정책위원회'를 지난 5월 30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인구감소 대응 5개년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강진군을 포함한 전국 89개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남도답사 1번지, 글

리 A 강진'을 비전으로 삼고, 4개 전략, 16개 실천 과제를 도출해, 인구 소멸 위기에서 탈출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실제 인구 유입과 생활인구 확대 투트랙으로 지역소멸을 저지한다. 먼저 은퇴자와 귀농·귀촌인 등 정주민 유입을 위해 ▲신규마을 조성사업 ▲주택 신축 지원사업 ▲빈집 리모델링 지원을 추진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강진 푸소 체험 운영 ▲푸케이션(푸소+워케이션) 운영 ▲병영 불금 불파 축제 개최 등 관광사업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지역 연계형 사업으로 ▲강진-광주 동구와 함께하는 지역 연계 & 협력 사업 ▲지역상생 강해영(강진·해

남·영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이밖에 ▲구 성화대학 활용 문화융합창업 플랫폼 구축 ▲사이버 군민 제도 운영 ▲각종 지원센터(맘편한센터, 늘봄센터, 어울림센터) 운영 등 모두 7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강진원 군수는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주민등록 인구는 이제 한계에 도달해, 생활권을 두고 오고 가는 생활인구 유입이 인구증가의 해답"이라며 "강진은 푸소시즌 2를 통한 주거와 일자리 제공, 빈집 리모델링 정비 등 차별화된 정책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추윤호/기자



목포시, 1897개항문화거리 탐방프로그램 운영 사업자 공모

6월 9일부터 6월 23일까지 신청...6월말 선정 결과 발표

목포시는 '1897 개항문화거리 탐방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추진할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

이는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목포에 활력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897 개항문화거리 탐방프로그램 운영'사업은 목포 원도심 도시재생 현장투어와 골목길 상권 투어를 비롯한 도시재생 사업지역 주변 전통시장과 특산물, 지역 관광 명소 등을 연계해 도시재생·문화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사업 신청은 1897 개항문화거리 탐방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목포시 소재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투어'를 주제로, 일반 시민이 관심을 갖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1897 개항문화거리 탐방·체험 코스를 개발 및 수립해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예산은 1개 프로그램 최대 2,500만원 지원으로 총 2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9일부터 오는 23일(17:00)

까지로, 공모주제 중복 여부 및 적합성 등 1897 개항문화거리 현장지원센터에 사전 자문을 완료 후 방문 제출할 가능하다. 최종 선정 결과는 6월 말 발표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배/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 개최

6월 11일! 특별한 출범, 특별한 행사로 '강원특별자치시대'를 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이 6월 9일, 강원대학교 백령아트홀에서 2천여 명의 내외 귀빈과 함께 열린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강원도민들이 기억해야 할 영웅들, 의인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인재들을 특별히 초청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의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 (영웅) '문주익의 영웅' 강원도 삼척 출신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금

메달리스트 황영조 씨

- (영웅) '221시간의 기적' 경북 봉화 지하 190m 차가운 갱도에서 열흘 만에 구조되어 기적적으로 생환한 정선군민 박정하 광부

- (영웅)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 357호의 전우를 구하려다 숨진故 박동혁 병장의 부모님 (현재 홍천군에 거주)

- (의인) 2019년 강릉시내에서 흥기 난 동범을 맨손으로 제압한, 2022년도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 화제가 됐던

청년 전중현, 변정우 씨

- (의인) 2022년 11월, 휴일 비번임에도 춘천 공지천에 빠진 시민을 구조한 춘천소방서 송우근 소방교

- (의인) 1976년 첫 헌혈 이후 꾸준히 헌혈봉사를 하여 강원도 최초로 700회 헌혈 기록을 세운 '헌혈왕' 이순만 씨

- (미래인재) 봅슬레이 국가대표팀 '막내' 상지대관령고 소재환 선수

춘천 출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사격 황제' 진중오 위원장도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 자격으로 출범 기념식에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참석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짐한다.

또한,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과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여창수 제주특별자치도 대변인 등 제주, 세종, 전북 등 다른 특별자치시·도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축하와 우정의 뜻을 직접 나누기로 했다.

300만 강원도민을 대표하여 강원도 지역 국회의원, 강원도의회 권혁열 의장 및 도의원,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단, 강원도민회,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시·군 병영회 등에서도 참석할 예정이다.

출범식 관련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가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탄생하는 이 순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 위대한 한강의 기적 뒤에는 항상 우리 강원도, 강원도민이 있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잘 되는 것이 곧 대한민국이 잘되는 길이다", "과감히 규제를 풀고,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늘려 강원특별자치도를 자유와 번영의 미래 산업 글로벌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지속가능한 원주 만들기, 2023 ESD 시민강좌 '기후위기, 인권의 눈으로 바라보기'

6. 13.(화) 오후 2시, 행구동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지속가능한 원주 만들기'를 위한 2023 ESD 시민강좌 '기후위기, 인권의 눈으로 바라보기'가 오는 13일 오후 2시 행구동 수변공원 내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에서 열린다.

원주시와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강연에서는 한국인권학회장이자 '탄소사회의 종말',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의 저자인 성공회대 조효제 교수가 강사로 나서 기후위기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환경위기와 인권위기의 연결고리에 대해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인권에 매우 광범위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협 요소로 부각되고 국내에서도 기후 위기를 인권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초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기후 위기와 인권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강좌는 현재 인권의 가장 큰 위협 요소로 떠오른 기후변화에 대해 고민해보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 주택관리공단 강원지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강원지사가 함께해 의미를 더한다.

또한, 행사 당일 플라스틱 병뚜껑 10개를 가져오면 친환경 대나무 미용티슈로 교환해주고, 모인 플라스틱 병뚜껑은 자원순환 전시물 제작에 사용되는 자원순환 캠페인도 진행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원주시를 위해 우리가 직면해 있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자발적 실천을 촉진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태백시, SH에너지솔루션과 '데이터센터 유치 업무협약' 체결

태백시 지역경제 활성화 신호탄

태백시는 지난 8일 폐광지역 경기 활성화와 태백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SH에너지솔루션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을 통해 태백시는 동태백로 일원에 700억 원을 투입하여 10MW급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19년 네이머 제2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아쉽게 성공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이상호 태백시장은 침체국면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데이터 산업 등 미래기술산업 육성을 위해 강원도의원 재직때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SH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부터 태백시에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고 그린데이터 센터 실현을 위해 설립된 기업이다. SH에너지솔루션 안상기 대표는 "태백의 최병원 위원장과 함께 태백 데이터센터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함께 맡아 태백의 낮은 평균기온에 기반하여 에너지 효율화 등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그린 데이터센터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이번에 태백시와의 MOU 체결을 성사시킬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경영 모델 사업



의 일환으로 SH에너지솔루션은 광산도시인 태백시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로 전환하여 지역산업 붕괴를 예방하고 지역 상생을 이루는 사회적 기업을 목표로 지속적인 R&D를 통한 그린데이터센터 기술을 선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SH에너지솔루션은 선제적으로 성공관대와 MOU를 체결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데이터센터 기술 개발에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센터 최초로

ESS(Energy Storage System)를 도입할 예정이며 지역 내에 데이터 센터 관련 교육기관을 조성하여 서버관리자 및 관련 기기 엔지니어를 육성함으로써 지역내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가한 SH에너지솔루션 관계자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직접 고용 인력 80명 정도이며 연계되는 고용 인력 100명 등 지방세수 증대 또한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계획중인 장성광업소 및 폐광부지를 활용한 중·대규모 클라우드 데이터센터건립 계획을 추진하며 SH에너지솔루션과 긴밀한 협조 의사를 밝혔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데이터센터 유치를 통해 시의 자생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데이터 산업 등 미래기술산업이 태백시의 4차산업으로 재편되는 초석이 될 것이며, 지방세 증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인허가 등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상근/기자

ESD 시민강좌

기후위기 인권의 눈으로 바라보기

2023. 06.13. 화요일 14시

신청 기간
2023년 6월 1일 ~ 6월 12일

장 소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201호

분 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033-747-3649

대 상
기후위기 또는 인권에 관심 있는 원주시민

신청 방법
전화 또는 QR코드를 통한 신청

♻️ 플라스틱 병뚜껑 10개를 가져오시면 대나무 미용티슈와 교환해 드립니다

강 사 조효제 교수

- 성공회대학교 교수
- 한국인권학회 회장
- <탄소사회의 종말>,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 저자

금호워터폴리스

- 상업, 근생, 지원, 단독주택, 주차장용지 수의계약 공급 중
- 관광숙박시설용지 공급 중

안심뉴타운

ANSIM NEWTOWN

- 일반상업, 준주거시설용지 수의계약 공급 중

분양문의 053) **350-0300**

대구도시개발공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dudc.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남도, 경찰병원 분원 건립 예타 대응 '총력'

9일 국회 토론회... "지역 의료 대응체계 구축·공공의료 강화 필요"

충남도가 신속한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위해 국회에서 군북을 지켰다. 도내 중부권 거점 재난 전문 의료기관을 건립해 지역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 복지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도는 9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명수·강훈식 국회의원 주최, 도와 아산시, 경찰청 주관으로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확정된 국립경찰병원 분원의 입지는 아산시 초사동 일원으로, 건립 규모는 6개 센터, 23개 진료과목, 550병상의 재난 전문 종합병원이다.

도와 아산시, 경찰청은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을 준비 중이며, 오는 2028년 개원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국립경찰병원 분원이 개원하면 중부권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이 들어서는

것으로 비수도권 경찰공무원 의료복지 제공, 도민 의료 서비스 개선, 공공의료 거점 병원 확대, 특수 재난 발생 시 의료 대응체계 구축, 지역 균형발전 촉진 등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수·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전형식 정무부지사, 박경귀 아산시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관계부처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토론회는 발제, 시민 발언, 종합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립경찰병원 분원의 역할을 모색했으며, 분원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먼저 정제용 울산대 교수는 '경찰병원 분원 건립 관련 예비타당성 논의'를 주제로 발제해 분원 건립의 의미와 목적, 예비타당성 조사의 취지와 필요성, 면제 가능성 및 사례 등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경찰 직무특성상 외상 위험이 커 의료복지 기반 확충이 필요한 점, 현재 경찰병원 의료서비스 요청이

포화상태인 점, 감염병 등 국가 재난 시 대응 가능한 중부권 거점 병원이 필요한 점 등을 근거로 광역 교통이 발달해 비수도권 경찰관의 접근성이 좋은 중부권에 분원을 건립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김정만 삼성미즈병원 산부인과 원장은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지방 공공의료 현실 및 경찰병원 분원 필요성'에 대해 발제해 대체 인력 부족으로 폐원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 산부인과 상황 등 의료계의 현실을 짚어보고 국가 공공의료체계 구축, 충남 서북권 경찰공무원 의료 편의 증진 등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의 기대효과를 전했다.

이어진 시민 발언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실제로 분원병원을 찾지 못해 아산에서 울산까지 헬기 이송으로 기적적인 분만을 한 아산 거주 시민이 참석해 편중된 지역의료의 현실을 꼬집고 중부권 의료거점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

종합 토론에는 이형석 행정안전부 군

형발전제도과장, 이미경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 이흥훈 국립중앙의료원 전략기획센터장, 명승권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대학원장, 성만제도 보건정책과장이 참여해 발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신속한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위한 여러 의견을 나눴다.

성만제도 보건정책과장은 인구 1만 명당 전문의 수 12.1명으로 전국 평균 17.2명에 비해 약 5명 부족 등 충남의 열악한 공공의료 현황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의 의미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도권 병상 총량제와 지역사제 및 지역수가제 등 공공 보건 의료 정책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전 부지사는 "국립경찰병원 분원의 역할을 잘 정리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전략을 발굴하고 분원을 하루빨리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20만 도민의 힘을 바탕으로 경찰청, 아산시와 함께 성공적으로 분원을 건립해 충남 아산을 '경찰의 도시', '경찰의 뿌리'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충북도, 육군학생 군사학교 부대개방행사 충북관광 마케팅 눈길

교육기관 및 군부대 등 잠재적 관광수요 창출에 주력

충북도가 최대 장교 양성기관인 괴산 육군학생 군사학교의 부대개방 행사를 통해 교육생 및 가족을 대상으로 충북 관광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충북도는 9일 괴산 군사학교에서 열린 가족과 함께하는 부대 개방행사에 참석한 군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충북의 숨은 관광지를 소개하는 사진전을 개최하고 주요 관광지 안내책자 배부 등을 통한 충북관광 홍보로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지난 2일 완주 지방자치단체개발원을 방문, 교육생 대상 관광 홍보활동을 전개했고, 아울러 교육원 로비에서 충북관광 사

진전을 개최하여 교육생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사진전은 6월 30일까지 한달간 개최한다.

충북도는 앞으로도 향토사단인 37사단을 비롯해 보건복지지원단,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군사관학교 등 군인 및 교육생 대상으로 충북 관광 홍보를 계획하는 등 잠재적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충북도 장우성 관광과장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채로운 관광 마케팅 강화로 충북을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로 각광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천안시 역대 최대 흑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빛났다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시의회 승인

천안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난해 역대 최대 흑자액 3,686억 원을 기록하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시의회 승인을 받아 12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2022 회계연도 예산회계 결산서에 따르면 세입은 3조 6,3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17억 원(12.4%) 증가했으며, 세출은 2조 8,582억 원으로 3,843억 원(15.5%)이 증가해 시의 재정규모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무회계 결산 순자산은 11조 1,8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98억 원(5.27%) 증가했으며, 총부채는 4,0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4억 원(-8.59%) 감소했다.

흑자액은 전년 대비 1,873억 원(103.26%) 증가한 것으로, 시는 역

대 최대의 흑자운용을 기록하며 부동산 침체와 물가상승,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 안팎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재정구조를 긍정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민이 이번 결산내용을 비롯한 시의 재정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청 누리집(홈페이지)과 시보에 결산서를 게재할 예정이다.

또 시민 누구나 한눈에 수천 장에 달하는 결산서를 알아볼 수 있도록 도표와 이미지화한 '시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김진수 행정안전국장은 "효율적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한 결과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경기 침체 등에 대비해 재정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안정적인 시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경찰병원 예타, 정책 타당성도 무겁게 고려돼야"

경찰병원 예타 대응 위해 아산시·충남도·경찰청·여야 국회의원 뭉쳤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예비타당성(예타) 대응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아산시는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최종 후보지에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 아산시와 충남도, 경찰청은 기획재정부 예타 조사를 준비 중이다.

박경귀 시장은 "경찰병원 분원 유치 성공은 37만 아산시민과 220만 충남도민의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이제는 그 열망을 현실화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우리 앞에 많은 산이 남아 있지만, 우리에게만 반드시 국립경찰병원 분원이 생겨야만 하는 당위성과 타당성이 있다"면서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 의료 복지, 재난 시 국가 위기관리에 필요한 거점병원의 필요성 등 경제적 타당성 못지

않게 중요한 정책적 타당성도 반드시 무겁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립경찰병원은 경찰만을 위한 병원도 아니고, 아산시민, 충남도민만을 위한 병원도 아니"라면서 "오늘 모인 분들께서 명분과 논리를 잘 만들어 주시면, 아산시와 충남도, 경찰청과 국회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 앞에 놓인 산을 하나씩 넘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분원병원을 찾지 못해 아산에서 울산까지 헬기로 이송되어 출산한 흥미란 씨의 남편 조민성 씨가 참석했다. 기적적으로 탄생한 아이와 함께 자라난 흥미란-조민성 부부의 모습은 경제 논리만 국립 3차 병원의 타당성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명수 의원과 강훈식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아산시와 충청남

도, 경찰청이 주관으로 열린 행사로, 국립경찰병원 분원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을 위해 아산시와 지역 여야 국회의원, 충청남도과 경찰청이 힘을 모으는 자리였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명수 의원(아산갑, 국민의힘)은 환영사에서 "간혹 언론에서 중요한 사업이 예타 심사나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시간도 걸리고, 재원도 소요되어 어려움이 많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전하며 "우리는 예타 면제를 요구하면서도, 예타 조사를 위해 실무적으로 챙겨 대비하는 투(two) 트랙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경찰병원은 특정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사업이 아닌, 대통령이 공약하고, 정부가 공모해 선정된 국가 차원의 사업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을 내주

면 기재부와 논의하는 데 참고하겠다. 병원이 건립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강훈식 의원(아산을,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의료복지에 차별받아야 안 된다"면서 "비수도권 지역에 국립경찰병원 하나가 자리 잡는 것으로 시민에게 줄 수 있는 안정감, 한계에 다달아 경찰병원 본연의 역할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본연의 역할을 분담해 경찰가족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 모두 국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다만 예타라는 것이 아박해서 지방에 불리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경제 논리로 답변하면, 국가는 역할을 할 수 없고, 국민은 의지할 곳이 없다. 국립경찰병원은 예타 조사로는 담아낼 수 없는 국가의 역할을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지금의 경찰병원은 이미 포화 상태인 데다 서울에 근무하지 않는 경찰들은 이용하기 어렵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경찰인재개발원과 경찰대학교 등 경찰타운이 있는 아산시에 경찰병원이 들어선다는 것은 그야말로 상징적이다. 더 많은 경찰공무원이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경찰병원 분원 예타 대응 전략 발굴을 위해서는 모두가 한 몸이 되어 뛰는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KDI의 병원 예타 기준이 지방에는 잘 나오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모두가 힘을 모아 지침 개정도 불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정제용 울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와 김정만 삼성미즈병원 원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이형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 이미경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 이흥훈 국립중앙의료원 전략기획센터장, 명승권 국립암센터 대학원장, 성만제도 보건정책과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원호/기자

충주시 우리음식사랑회, 우리 쌀 활용 간식 나눔

우리 쌀로 만든 초코칩 쿠키 지역아동센터에 전달

충주시 우리음식사랑회는 9일 지역아동센터 6곳(연수동, 교현동, 삼미면, 동량면 등) 아동 200여 명에게 우리 쌀로 만든 간식을 전달했다.

우리음식사랑회 회원들은 이날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밀가루 대체 가공용 쌀품종 바로미를 사용해 초코칩 쿠키를 만들었다.

조운선 회장은 "지역 내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쌀을 활용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봉사하고 나눔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음식사랑회는 충주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 조리·가공을 통하여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힘



영덕군의의회, 제296회 정례회 개최

영덕군의의회는 오는 12일부터 22일 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296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의원 발의 조례안 7건 등 각종 안건들을 심의·의결한다.

세부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12일은 개회식과 함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 5분 자유발언(김은희 의원)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안설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 총 12건의 심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12일 오후부터 14일까지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정희) 활동을 펼치고 1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안설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다.

16일부터 22일까지는 2022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철) 활동을 펼친다.

회기의 마지막 날인 22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군정질문을 실시한 후 제296회 정례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유상근기자



금천구, 구강 보건의 날 캠페인 시행

6. 13.(화) 오후 2시, 행구동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금천구는 6월 9일 제78회 구강 보건의 날을 맞아 금나래체육문화센터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구강 보건의 날'은 첫 영구치가 나오는 6세의 '6'과 어금니의 한자어인 구치(臼齒)의 구(臼)를 숫자화해 6월 9일로 지정했다. 구강보건의 날 캠페인의 표어는 '다시 찾은 건강 미소, 함께하는 구강 관리'다. 구강건강을 평생 유지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정기적인 구강검진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금나래문화체육센터 1층 로비에서 주민들에게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예방법 등 구강관리 방법을 안내하는 리플릿을 배부하고, 구강 상식 OX 퀴즈, 올바른 잇솔질 영상 상영, 치아그림 네일아트 등 체험행사를 진행했

다. 6월 23일에는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에게 올바른 구강관리를 위한 구강 위생용품, 불소양치 용액, 홍보 리플릿등을 배부하는 구강건강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6월 9일부터 23일까지는 구강보건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기간 중 금천구 보건소 4층 구강보건실을 방문한 주민들에게는 홍보 리플릿과 함께 자일리플 캔디·겔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구강 보건의 날 캠페인을 통해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구강관리 방법을 알아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구강건강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항신/기자

한울본부, 이동식 동력소화펌프 및 자율대여용 구명조끼 전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지난 8일, 울진해양경찰서(경찰서장 최원식)에 이동식 동력소화펌프 2대 및 자율대여용 구명조끼 300벌을 구입하여 전달하였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구입한 구명조끼는 울진해양경찰서에서 나목리, 후포리 등 자연해변 16개소에 비치할 예정으로, 해수욕장에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또한, 단체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울진해양

박범수 본부장, "앞으로도 안전한 울진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한울본부가 노력하겠다"고 밝히

경찰서 파출소에 신청하면 대여받을 수 있다.

또한, 한울본부는 밀집계류 어선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죽변항과 후포항에 각 1대씩 이동식 동력소화펌프를 설치하였으며, 이날 펌프 시연회를 가졌다.

최원식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자율대여용 구명조끼 지원을 통해 올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며, "작년도 투척식 소화기 지원에 이어 한울본부에서 이동식 동력소화펌프를 지원해주어 울진군 해양 안전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에 박범수 본부장은 "사업지원사업을 통해 해양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내 어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울진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한울본부가 노력하겠다"라고 회답했다.

윤근수/기자



"백세 건강은 치아에서~" 광진구,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 개최

광진구가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다시 찾은 건강미소, 함께하는 구강관리' 캠페인을 운영했다.

구청 은행나무길에서 열린 이번 캠페인은 다양한 체험행사로 꾸며졌다. 광진구보건소 진료팀이 구강질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치아 건강의 중요성을 안내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올바른 양치 습관을 알려 호응을 얻었다. 칫솔, 치간칫솔, 치실 등 구강 위생용품 사용법을 자세하게 배워보고 치아 모형을 활용해 실습하는 기회까지 마련했다.

이 외에도, O/X 퀴즈를 풀어보며 구강건강 상식을 쌓고, 메모지에 목표와 다짐을 적어 마음가짐을 되새기는 시간이 이어졌다. 참여자들에게는 올바른 칫솔 사용법과 치아우식증 예방법이 적힌 안내문을 배부하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평소 소홀이 여겼던 치아 관리에 무엇보다 힘써야겠다고 느꼈다", "건강을 위해 하루 3번 양치를 꼭 해야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캠페인이 치아 건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구민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구강보건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78회를 맞은 '구강보건의 날'은 치아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첫 영구치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과 어금니(구치, 臼齒)의 구를 숫자 '9'로 조합해 6월 9일로 지정했다.

강성원/기자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기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숲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길, 정지용과 추사대령의 숨겨진 숲길

길

장미와 관동향, 그리고 영양에서 영양까지 80여년

물

정지용이 '내애'를 쓴 영양에서 영양까지 80여년... 남산, 강진, 영양

빛

평소 영양에서, 영양에서 영양까지 80여년... 영양에서 영양까지 80여년

일

영양에서 영양까지 80여년... 영양에서 영양까지 80여년

맛

서민들이 좋아했던, 영양에서 영양까지 80여년... 영양에서 영양까지 80여년

심

자연의 아름다움, 영양에서 영양까지 80여년... 영양에서 영양까지 80여년

영양 들머리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비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해계곡, 본신계곡, 침벽곡원, 촉백수림, 외씨버섯길
- 영양의 역사: 읍성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립박물관, 영양문화유산박물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휴양림, 영양공력발전단지, 홍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생물활력마을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은평구,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포럼 개최...푸른 지구 살리기 '앞장'

6.13.(화) 오후 2시, 행구동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서울 은평구가 9일 오후 2시 세계 각국의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를 초청해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는 도시 간 평생학습 지식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2015년 설립했다. 은평구를 포함한 전 세계 76개국 294개 도시가 가입했다.

이번 국제포럼은 '돈트 이트 아우 퓨처(DON'T EAT OUR FUTURE): 푸른 지구를 살리는 길, 은평에서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열렸다.

대한민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 5개국 6개 유네스코 학습도시가 참여해 도시 간 지속가능발전교육 사례를 공유하고, 온전한 미래로 나아가는 방안을 모색했다. 사회는 유네스코 국제평생교육기구(UII) 라울 발데스 코데라 부소장 대행과 서울

여자대학교 신민선 교수가 맡았다.

김미경 구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전 세계는 기후 위기로 인한 격동의 시기로, 현대는 피해를 겪는 첫 세대이자 위기 진행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다. 푸른 지구가 살아있는 미래를 위해 필요한 평생학습의 역할과 글로벌 학습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자"고 말했다.

오프닝 강연에는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과 데이비드아초아레나 유네스코 국제평생교육기구 전 소장이 강사로 나섰다.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지구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다. 질적 향상을 위해 환경교육 강화와 함께 교육 불평등 해소에 힘써야 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한층 질적으로 발전하고 우리 시대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네스코글로벌학습도시 대표 총 7명이 각 도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동향과 이슈를 소개했다.

프랑스 에브리 쿠크론에서는 과학축제, 미디어 사이언스, 마이크로폴리스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독일 함부르크는 학교에서의 녹색학습, 녹색 평생학습 프로젝트, 기관 녹지화 등 사례와 함께 지속가능 전략 '2030 마스터 플랜'을 설명했다.

아일랜드 코크는 지속가능한 혁신적 비전을 제시하는 2022-2028년 도시발전계획, 평생학습 축제, 기후 중립 도시로서 기후 행동을 주도적으로 실천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탈리아 루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 접근법, 평생학습 협약, 보행자 전용길, 자전거 전국 프로젝트 등의 사례를 설명했다.

통영시는 박은경 유엔대학 아시아태평양지역 상임교문이 국내 1호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통영센터를 소개했다. 국제 동향과 함께 통영센터 지정 이후 일어난 세자트라숲 개장, 평생교육도시 지정 등의 다양한 사례를 발표했다.

은평구는 김 구청장이 나서 지속가능 도시 구현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과 은평형 지속가능발전교육 사례를 발표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6대 분야 35개 사업을 추진하는 '은평 2050 탄소중립', 에너지센터 조성, 주민 참여형 분리배출체계 그린모아모아, 은평우리 동네배움터 등을 소개하며 학습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김미경 구청장은 "이번 포럼으로 학습도시 간의 네트워크를 굳건히 하고, 향후 겪게 될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회복력을 구축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푸른 지구를 살리는 길 중심에 학습도시 은평구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철회 요구 "주민 사유재산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멈춰야"

송파구가 서울시의 잠실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서울시에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극약처방으로 단기적이고 예외적으로 해야 함에도 3년 동안 주민 피해를 강요하는 본질적 침해가 지속되어 오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지금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의 적기"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잠실동 전역 520만㎡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2020년 6월 23일부터 3년간 묶여있던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제한적인 조치인데, 잠실동은 특별한 사유 없이 주민들의 본질적인 재산권 침해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잠실동은 MICE 사업계획이 한참 전에 발표돼 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이익이 이미 실현되어 허가구역 지정 실익이 사라진 상태"라며 "MICE 사업 준공시점까지 아직 오랜 기간이 남았는데, 기약 없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이 해답인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서 구청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극약처방, 단기적·예외적으로 해야"



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불공정한 처분'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잠실동 허가구역지정은 투기우려가 없는 재건축 완료 단지까지도 모두 묶어둔 과도한 조치로, 투기과열 우려가 있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강남의 사례와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는, 거래신도 처리내역 분석과 중개업소 모니터링 결과로 근거로 부동산 하락세 안정화를 보이고 있는 현 시점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잠실동 부동산 거래량은 허가구역 지정 전인 2019년과 대비해 약 34% 수준으로 감소(19년 기준: 2,705건, '22년 기준: 911건)했으며, 거래가격 또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기준 잠실동 공동주택가격은(국평 84㎡ 기준) 전년 대비 급락한 -30.01%의 변동률을 보였으며, 자가변동률 또한, 올해 1월 기준 -0.049%로, 지난해 자가변동률(0.392%) 대비 하락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동안 잠실동 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 연명부 제출과 입주자대표회 주민의견 송부 등으로 재산권 침해와 거주이전 자유 침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해왔다. 이에 구는 2021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해제 요청을 적극 건의하며 주민들의 의견에 발맞춰 대응해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제도도 투기거래 근절이라는 기본취지에 맞게 현존하고도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 조치"이기에, "특정 지역 주민들이 연이 어 고통을 감수하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황규석/기자

"기적의 4분", 성북구, 구민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연중 운영

심폐소생술교육 연중 운영해 구민의 응급상황 대응능력 향상

성북구가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연중 운영해 구민의 응급상황 대응능력을 향상에 힘쓰고 있다.

성북구보건소 및 지역 내 각 보건지소에서 전문강사를 초청해 이론과 실습이 포함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과 6월 2일 각각 동선보건지소와 장위석보건지소에서는 성인의 심폐소생술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정릉야동보건지소에서 이달 1일 열린 교육에서는 가정 내 양육자를 대상으로 영·유아 응급처치에 관한 내용이 진행됐다.

교육을 들은 주민은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 등 응급

처치에 대한 교육을 들을 기회가 생겨 좋았다. 안전교육이 더 많이 개설되어 실생활 활용도를 높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사고발생시 골든타임 내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을 배워 구민 누구나 위기상황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마련했다"면서 "심폐소생술을 활용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성북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북구민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은 성북구청 및 성북구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과 사전 접수방법을 공지한다.

강성원/기자



서울시 중구, 동네배움터 여름학기 수강생 모집

7월부터 여름학기 시작

새로운 취미생활을 만들어보고 싶다면, 무언가 배우고 싶다면, 중구에 방문해보자.

서울 중구가 일상 속 배움을 위한 '동네배움터 여름학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중구 동네배움터가 올해 확 달라졌다.년부터 가을까지 학기제를 도입하고 구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수강 신청할 수 있게 개편해 주민들이 한눈에 보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구는 공방, 서점 등 10개의 동네배움터를 찾아내 해당 기관과 공동으로 44개의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7월부터 진행되는 여름학기에는 ▲ 다른

갤러리(필름)에서 도자기와 미술 강의 ▲ 소요서가(울지로동)에서 퇴근길 철학 강의와 신간 읽기 ▲ 종림초교(종림동)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다육이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다.

신청은 중구청 홈페이지 '평생학습' 동네배움터 코너에서 프로그램별 장소와 시간을 확

관악구, 여름철 폭염 대비 종합 대응체계 본격 가동!

폭염 취약계층 집중 돌봄... 재난도우미, 사물인터넷 등 활용한 취약계층 집중 돌봄



관악구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했다.

구는 ▲종합지원상황실 운영 ▲취약계층

집중 관리 ▲폭염 저감시설 확충 ▲취약시설물 안전 관리 ▲야외 근로자 안전관리 ▲식중독 예방 및 유통점검 ▲폭염 예방 홍보 등 7개의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폭염 특보 발효 시 취약계층의 안전 확인

을 위해 1,054명의 재난도우미가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방문을 통해 건강 상태를 꼼꼼히 살핀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전력량을 확인하는 '스마트플러그 안부확인 서비스'와 인공지능 전화(AI콜)로 안부를 확인하는 '똑똑 안부확인 서비스'도 운영한다.

폭염에 취약한 주민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 수 있도록 관내 총 140곳(▲경로당 110곳 ▲중 주민센터 21곳 ▲복지관 7곳 ▲안전숙소 2곳)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지난 5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외에도 폭염 취약계층에게 선풍기 등 냉방물품을 지원하고 노숙인 시설 안전점검과 거리 노숙인 순찰 보호 강화하여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집중 돌봄에 만전을 기한다.

또한, 야외 활동시에도 폭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감찬 스마트 그늘막'을 확대 운영

한다. 구는 현재 강감찬 스마트 그늘막 62개, 접이식 그늘막 20개, 총 82개의 그늘막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강감찬 스마트 그늘막을 13개 이상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버스정류장 53개소에서는 스마트 냉풍기를, 관악산과 낙성대공원에서는 안개형 분사기(쿨링포그)를 작동시키고 오는 7월에는 공원 내 이동형 그늘막도 25개 추가 설치한다.

이외에도 어린이집에는 그린키프를, 경로당에는 방열 지붕(쿨루프)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폭염저감시설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돕고 냉방에너지 절감에도 나선다.

한편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통해 폭염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안내 방송,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는 등 예방 중심의 홍보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홀몸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폭염 취약시설 안전을 철저히 관리해 구민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서대문구, 성 공간 홍제천에서 단오 음식 만들고 민속놀이 즐긴다

수리취절편과 앵두화채 만들기, 어린이 달구지 타기 체험 등 진행



서대문구가 단오를 앞둔 주말인 이달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홍제천 쪽파마당과 수변카페 테라스에서 '단오맞이 홍제천 먹거리 장터'를 개최한다.

단오는 우리나라 4대 명절 중 하나로, 구는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음식과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이날 '단오 음식 부스'에서는 수리취절편과 앵두화채 만들기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세시풍속 부스'에서는 멍석말이 널리기 와 어린이 달구지 타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를 체험하고 부채를 만들어 볼 수 있다. 단오맞이 '꽃 그네 포토존'도 운영된다.

또한 관내 6개 전통시장(백련시장, 영천시장, 인왕시장, 유진시장, 홍제 골목형상점가, 포방터시장)의 인기 품목인 신선 채소와 과일, 견과류, 김치, 젓갈, 떡갈비, 주꾸미밀키트, 한과, 파배기, 족자 인절미, 매운 김밥 등을 구입할 수 있다.

'MZ세대 음식 ZONE'에서는 신촌 지역 청년 상인들이 다양한 먹거리(치즈버거감자세트, 비건 샐러드,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소시지와 떡 꼬치, 크림 케이크 등)를 판매한다. 홍제천 인공폭포의 경치를 감상하며 음식을 들 수 있도록 '휴게 공간'도 마련된다.

아울러 관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친환경 먹거리를, 어린이 도시농부들이 텃밭 농산물을 판매한다.

구는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고 장바구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일 2만 원 이상 구매객 500명에게 장바구니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성현 서대문구청장은 "감성 공간 홍제천에서 우리의 전통 명절을 기억하며 다양한 먹거리와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는 '단오맞이 홍제천 먹거리 장터'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경북교육청, '우리 반 희망 사다리 교실'로 학습결손 해소 지원

초·중·고 431교 7,633학급에 맞춤형 교과보충 프로그램 제공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해 '우리 반 희망 사다리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우리 반 희망 사다리 교실'은 학습지원 대상학생 및 학습결손이 있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의 수준과 희망에 따라 운영되는 교과보충 프로그램이다.

학생과 교사의 자발적인 참여와 신청을 기반으로 소규모 또는 중규모로 학급을 편성해 방과후와 방학 등을 이용해 운영한다.

또한 '우리 반 희망 사다리 교실'은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학습 보충 뿐만 아니라 학습 지원과 연계한 정서행동발달 프로그램도 운영이 가능하다.

아울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담임교사가 집중 지도를 하거나 특정 과목에 대한 보충 지도를 위해 교과교사 및 외부강사

의 지도도 가능하게 실질적인 학습 도움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2023학년도 1학기에 초·중·고 431교 7,633학급을 편성해 33,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21학년도부터 운영해온 '우리 반 희망 사다리 교실'은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의 만족도가 높아 2학기에도 신청을 받아 운영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후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 맞춤형 교과보충 프로그램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발생한 학습결손의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들의 긍정적 인 배움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학교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전남교육청-전남서부보훈지청 업무협약 체결

"보훈문화교육 활성화 위한 콘텐츠 보급 협력"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남서부보훈지청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월 9일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나라사랑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은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박경미 전남서부보훈지청장을 비롯한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협약으로 두 기관은 우리 아이들이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균형잡힌 역사 의식을 겸비한 자랑스러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미있는 발판을 마련하자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보훈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학교에 보급하는데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

과정과 연계한 보훈문화교육 프로그램 학교 안내 및 내실화, 학생들의 올바른 나라사랑 의식 제고를 위한 체험 및 봉사 프로그램을 서로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애乡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전남의 역사 사적지 탐방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우리 전남은 예로부터 의향의 고장이었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아이들이 선조들의 건장한 역사 의식을 이어받아 진정한 애乡심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경북교육청, 전국 교육청 최초 '119비상벨 설치 사업' 실시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촘촘한 그물망 안전 정책' 펼쳐



경북교육청은 올해 도내 모든 공·사립 982개 학교를 대상으로 '119 비상벨 설치 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119 비상벨 설치 사업은 학교 내 화재나 지진 등의 위급상황과 야간에 단독으로 근무하는 당직 근로자의 심혈관계 질환 발생 시 보다 빠른 대처를 위한 '촘촘한 그물망 안전 정책'의 일환이다.

경북교육청은 8억 6천여만 원을 투입해 2023년 상반기 안에 모든 학교에 119 비상벨을 설치할 계획이다.

119 비상벨 지원 사업은 야간에 단독으로 근무하는 당직 근로자의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빠른 대처와 신고를 위해 경북소방본부 상황실과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119 비상벨 작동 시 학교 내 당직 근로자의 병력 정보와 가족의 연락처

가 상황실로 안내되어 응급상황에 빠른 대처가 가능하고 동시에 지정된 학교 구성원들의 연락처로 119에 신고가 되었다는 알림 문자가 발송되어 빠르고 효과적으로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청은 학생의 안전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교육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안전 사업을 발굴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유·초이음 형님이랑 동생이 어울려 놀장(場)

아나바다! 함께하는 시장놀이



영주남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지난 9일(금), 유아 및 초등학생, 장수초병설유치원, 봉현초병설유치원 총 200여명을 대상으로 '방과후놀이배움터 연계 유·초이음 형님이랑 동생이 어울려 놀장(場)'을 본교 강당(솔빛관)에서 진행하였다.

이번 시장놀이는 유·초이음교육으로 형님과 동생이 어울려 경제 배움과 아나바다 행사의 취지를 살려 자원 절약과 재활용, 나눔을 실천하는데 목적이 있다.

행사 실시에 앞서 각 가정에서 필요하지 않지만 재사용할 수 있는 의류나 소품, 장난감, 문구류 등을 수집하고 유아들은 지갑과 간판을 직접 만들고 꾸몄다.

드디어 시장놀이가 열리고 기대에 찼던 손님과 가게 주인을 번갈아 체험하며 유치원 학부모놀이지원단 학부모가 직접 만든 건강한 간식이 제공되고 솜사탕, 팝콘 가게가 추가되어 더욱 풍성한 시장의 모습을 연출했다.

유아들은 이번 시장놀이를 통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교육의 성과를 높이고 사회성과 협동하는 태도를 길렀으며 수익금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원탁토론회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3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원탁토론회를 9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학교폭력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생, 학부모, 교원, 학교전담경찰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학생 상담 및 갈등조정 전문가 등 11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3년 인천시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과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논의하고, 내년 학교폭력 예방 대책 정책 추진 기반을 모색했다.

토론회는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윤구식 실천소장의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 바라본 학교폭력에 대한 새로운 시선' 주제 강연으로 시작했다. 이후에는 토론자별 모둠을 구분하고 소주제를 나눠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 정책 ▲학교폭력 사안 대응 절차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심의 ▲피해 학생 지원 및 가해학생 특별교육 ▲갈등 조정 및 관계 회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주제 발제자는 학교폭력에 대

한 패러다임이 기존의 응보적 정의에서 회복적 정의로 전환해 일련의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회복적 정의의 가치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관계 설정과 학교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학교폭력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공감하면서도 갈등에서 비롯한 학교폭력과 중대한 청소년 범죄는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는 점 ▲사회정서학습과 같은 인성교육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문화 확산 ▲학교공동체 관계 회복에 입각한 학교폭력 예방 방법과 매뉴얼 개정 필요성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재발방지를 위한 지원 강화 등에 뜻을 모았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원탁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청송교육지원청, 2023 민주시민교육 지역특색 사업

이호경 교육장, '리더의 자질 특강 및 학교 생활 질의 응답으로 소통의 장 마련'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은 지난 7일, 청송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청송학생자치참여위원회 위원 및 학교 대표 24명과 "교육장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2023 민주시민교육 지역특색 사업(1차 리더십 캠프)으로서 1부에는 '교육장과의 소통·공감의 시간', 2부에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1부에서 교육장은 리더의 자질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특강을 하였으며, 이후 학교 생활에 관한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각 학교 대표들은 학생 자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분임토의

후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며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웠다. 2부에는 영양 장계향문화체육교육원에서 문화해설사로부터 여성 리더십의 본보기인 장계향 선생님의 관해 배웠으며, 서예체험으로 캠프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청송학생자치참여위원회 대표인 진보고등학교 000학생은 "교육장과 가까이 마주보며 교육에 관한 고민을 묻고 답하는 기회를 가지고, 학교 대표들과 학생 자치회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리더는 소통하고 공감하는 사람이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윤근수/기자

2023년 충청북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성료

품질경쟁과 축제의 장, 대상 1팀·최우수 18팀 전국대회 출전 확정

충북도는 6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충청북도 기업진흥원에서 총 24개팀의 100여명이 참가하는 2023년도 충청북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49회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에는 김두환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배이열 한국표준협회 경영품질원장을 비롯한 기업체 임원과 분임조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충청북도가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 충북지역본부 주관하는 '충청북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기업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분임조를 발굴·육성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대회

이다. 본 행사는 품질개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기업의 품질경영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고자 매년 개최하는 대회로 올해는 (주)LG화학, (주)코스메카코리아, (주)LG에너지솔루션, 한일시멘트 등 10개사와 24개 분임조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9일 대회결과, 자동차전자 롤프레스 공정 개선으로 부적합품률 감소를 발표한 (주)LG에너지솔루션의 시그니처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으로는 대기업 부문에서 반도체소재 합침실 공정 개선으로 위험도 감소를 발표한 (주)LG화

학 청주·오창공장의 난종일기 등 7개 분임조, 중견기업에서는 시멘트 소성공정 개선으로 위험도 감소를 발표한 한일시멘트(주)단양공장의 울타리 등 7개 분임조, 공공·해외 부문에서는 총 4개 분임조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선발된 우수분임조는 도지사 상장이 수여됐으며,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분임조는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전남 순천에서 개최되는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참가한다. 행사 첫째 날인 8일에는 도내 기업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산업부장관 표창 부문에서 아세아시멘트(주) 홍진배 부장, 도지사표창 우수기업 부문에서 (주)청호나이스, (주)삼양패키징 광혜원 공장, 도지사표창 유공자 부문에서 △(주)LG화학 청주오창공장 장대희 등 12명 등 총 15개의 품질경영 우수기업 및 유공자 표창장을 수여했다. 김두환 경제통상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투자유치 32조 4천억원 달성, 경제성장률 전국 2위 등 충북경제가 선전하고 있는 것은 기업인들의 혁신적인 품질경영과 근로자들의 품질향상을 위한 끈기와 노력 덕분"이라고 말하며 "이번 경진대회에서 여러 분야의 우수사례가 도내 기업으로 공유·확산되어 기업체질 개선과 제품경쟁력을 강화하는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2023 실향민 문화축제 개막, 3일 동안 다양한 행사

오전 11시 합동방향제 열고 공식 일정 돌입



'2023 실향민 문화축제'가 "한반도 평화통일의 꿈을 품은 도시, 속초"를 주제로 속초시 청초호 엑스포 잔디광장에서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3일 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일상로서의 회복 과정에 발맞추어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여 시민과 전국 실향민 및 관광객을 맞이했다. 이번 '2023 실향민 문화축제'는 시민과 전국 실향민 및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개최장소였던 아바이마을을 벗어나 속초 엑스포 잔디광장에 메인무대를 마련하여 개·폐막식 및 특별공연 등 주된 행사

를 진행하고, 청호동 방향공원과 동명동 수복기념탑공원 등에서 합동방향제 및 작은 음악회를 진행한다. 축제 첫날인 9일 오전 11시 청호동 아바이마을에서 공식행사인 합동방향제로 시작한 이번 축제는 다양한 식전 및 연계 행사 함께 이북 5도 위원회와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 및 실향민 1,000여 명이 함께하는 개막식이 개최되며, 축제의 화려한 개막을 알린다. 개막 식전 공연인 '북한문화예술공연'과 축하공연인 '뮤지컬 갈라 콘서트 갯배'는 축제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

다. 특히, '뮤지컬 갈라 콘서트 갯배'는 시 승격 60주년을 기념하여 실향민의 역사를 대표하는 공연 '갯배'를 뮤지컬 갈라 콘서트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속초시 홍보대사인 트로트 가수 신승태가 속초시립풍물단 및 갯바당과 함께 축제의 개막을 축하하기 위한 공연이 펼쳐진다. 축제와 연계된 다양한 행사도 진행된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인 해상퍼레이드 및 플라이트 워터쇼, 드론 현수막 퍼포먼스가 청초호 일원에서 펼쳐졌으며, 같은 날 체스터투스속초 호텔에서는 '실향민 마을'에서 통일 준비 및 환동해 중심 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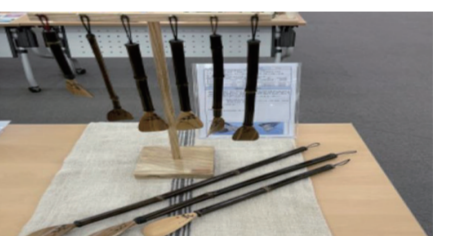
기억하고, 추억하고 싶은 강릉! 관광기념품 '초당순두부 찹쌀떡' 선정

제15회 강릉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총 12점 선정, 시상식은 7월 초 진행

도시로' 라는 주제로 실향민문화 학술포럼이 개최된다. 또한, 9일부터 10일까지 수복기념탑 공원에서는 시 승격 60주년 및 공원 정비 기념으로 실향민 문화축제와 연계한 작은 음악회를 열어 아름다운 음악 소리로 시민들과 관광객의 귀를 사로잡을 계획이다. 다양한 공연과 행사 외에도 매년 실향민 문화축제에서 관광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실향민문화 테마거리와 포토존이 축제기간 동안 청초호 호수공원 일원에 설치되고, 속초시 연극협회 회원들이 피난 당시 실향민들의 삶과 문화를 거러퍼포먼스 형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엑스포 분수광장 앞 보조무대에선 속초를 대표하는 지역문화예술인들의 공연이 펼쳐지며, 이북·실향민 및 지역문화 체험부스도 운영된다. 아울러, 축제장 입구에는 실향민과 속초의 역사·문화를 소개하는 홍보관이 설치되어 이북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의 정착 과정에서 낯 피운 다양한 실향민문화와 이 문화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속초를 대표하는 문화로 자리 잡게 됐는지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도 열린다. 한편, 잔디광장 한편에는 에어바운스 등 아이들을 위한 키즈존을 운영할 계획으로, 가족 단위로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등원/기자

강릉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발굴하기 위해 '제15회 강릉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 작품 12점을 최종 선정했다. '기억하고 싶은 추억하고 싶은 강릉'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강릉 고유의 색깔이 담긴 독자적이고 실용적인 관광기념품 판매를 활성화하고자 추진됐다. 강릉의 매력적인 로컬 콘텐츠를 소재로 한 국내외 관광객이 구매할 수 있는 공산품, 공예품, 패션잡화류 등이나 관광명소 및 대표축제를 상징하는 기념품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관내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작품을 발굴하기 위해 변화를 주었으며, 상품 매가 용이하도록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60점의 출품작 중 9개의 관외업체가 참여하여 눈길을 끌었으며, 각계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상징성, 상품성, 디자인, 품질 수준을 평가하여 심사했다. 총 12점의 수상작은 대상 1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3점, 입선 5점으로 관외 2점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통간식인 떡과 초당순두부를 접목시킨 먹거리 상품개발로 많은 호평을 받은 '초당순두부 찹쌀떡'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금상은 '오죽헤라'로 오죽헌의 오죽을 주제로 실용적인 주걱을 생산해 강릉을 계속해서 떠올릴 수 있는 생활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이외에도 강릉사이다, 막걸링, 스킨, 커피키 등 다양한 먹거리를 찾는 관광객 타겟으로 한 작품들이 주로 선정됐다. 선정된 작품에 대한 시상식은 7월 초 진행될 예정이며, 시상금은 대상 400만 원, 금상 200만 원, 은상 각 100만 원, 동상 각 50만 원, 입선 각 30만 원이 수여된다. 또한, 공모전 수상자 시상식 후 우수한 상품들을 시청 1층 로비에 전시하고, 기념품 판매점을 통해 판매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엄금문 관광정책과장은 "강릉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추억을 선물할 수 있는 강릉 고유의 멋이 담긴 독자적이고 실용적인 우수 관광기념품을 계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경남도립미술관, 'N ARTIST 2023더 느리게 춤추라' 전시 연계 '큐레이터 토크' 개최

전시기획자에게 듣는 지역 젊은 작가의 작품 이야기

N ARTIST 2023: 더 느리게 춤추라

*

큐레이터 토크

2023. 6. 15. 목
14:00 — 15:00

미술관 3층 전관

경남도립미술관은 3월 개막한 'N ARTIST 2023더 느리게 춤추라' 전시 연계 행사로 전시기획자와 관객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큐레이터 토크'를 개최한다. 도립미술관이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는 'N ARTIST'는 'New', 'Neo', 'Non', 'Next' 등 다중적인 의미를 기반으로 경남을 거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전시다. 올해는 김예림, 이혁, 정현준, 조현수, 한혜림 등

5명의 청년이 참여하며 '더 느리게 춤추라'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다. 오는 6월 15일(오후 2시) 개최되는 '큐레이터 토크'에서 전시기획자(박지영 학예연구사)의 생생한 목소리로 본 전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 볼 수 있다. 아울러 전시기획 의도, 개별 작품과 작가에 대한 설명, 전시기획 과정 등 현장의 이야기까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마련됐다.

본 행사는 별도 신청 없이 관람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6월 15일 오후 2시까지 미술관 1층 전시장 입구로 오면 된다.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 작가와 작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N ARTIST 2023더 느리게 춤추라'는 8월 27일까지 전시가 이어질 예정이다. 장재원기자

화성시문화재단, 2023 화성시 청년예술단과 함께하는 '다리밟 영화관 시네마 콘서트' 개최

전시기획자에게 듣는 지역 젊은 작가의 작품 영화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라이브 공연부터 애니메이션 '소울' 상영까지... 가족이 함께하는 여름 밤 피크닉

다리밟 영화관

2023. 6. 17. Sat. 19:00

동탄7동 송방천 5교 밑 행사장
화성시 동탄순천대로 245 (신석동 724-4) 인근

소울

(재) 화성시문화재단은 화성시 청년예술단과 함께하는 '다리밟 영화관 시네마 콘서트'를 6월 17일(토) 19시 동탄7동 송방천 5교 밑 행사장에서 연다. 화성시 청년예술단은 2020년 8월 창단된 공공예술단체로 화성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과 지역 청년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단원들은 관현악, 국악, 보컬 총 3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기획·제작하여 시민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처

을 개최한 '다리밟 영화관 시네마 콘서트'는 예술단의 다채로운 공연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함께 상영해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올해는 무더위가 오기 전 개최해 시민들이 조금 더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이번 행사는 1부 공연과 2부 영화 상영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화성시 청년예술단의 다채로운 공연을 약 1시간 동안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서는 영화 '왕의 남자', '웰컴 투 동막골', '스타워즈', '오페라의 유령' 등 유명한 영화 속 주제곡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특히 대형 스크린의 미디어 영상과 함께 어우러지는 라이브 공연으로 영화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생생함을 전할 예정이다. 이후 이어지는 2부는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가족 애니메이션 'SOUL(소울)'을 상영한다. 이번 공연은 동탄호수공원 인근인 동탄7동 송방천 5교(다리) 밑 행사장에서 6월 17일(토) 19시부터 시작하며 사전 예매 없이 전시 무료로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재원기자

GOOD AIR CITY 인증도시



대한민국의 숨, 울진

대한민국이 숨쉬고
모두가 함께 숨쉬는 땅, 울진

대한민국의 숨, 울진은
동해바다의 푸른공기와 금강송의 맑은공기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맑은공기 모범도시(GOOD AIR CITY 인증도시)울진을 상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상융합세계의 주역이 될 청년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개발자·창작자 본격 양성 추진

초·중·고 431교 7,633학급에 맞춤형 교과보충 프로그램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메타버스 개발자·창작자로 양성하는 '메타버스 아카데미' 제2기 입학식을 6.8(목) 메타버스 허브(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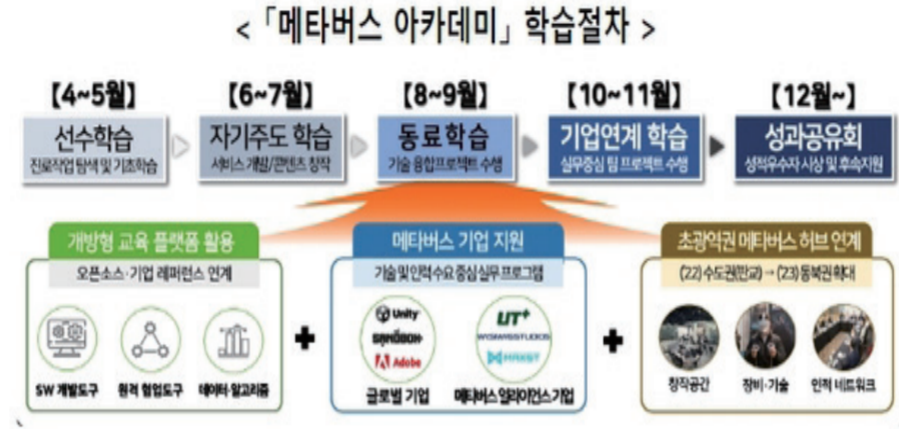
이날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 한국전파진흥협회 송정수 상근부회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승 부원장,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우병구 원장, 강원디지털진흥원 최인숙 원장을 비롯하여 참여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강사, 교육생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메타버스 아카데미 제2기 교육생 입학식을 축하했다.

메타버스 아카데미는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및 콘텐츠 창작 의지가 있는 만39세 이하의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자신이 원하는 전공분야의 메타버스 전문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메타버스 허브(판교)에 개설됐다.

올해는 지역 청년들의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지난해 메타버스 허브가 구축된 동북권(대구, 경북, 강원) 지역으로 확대했으며, 수도권(판교) 교육장을 재구조화하여 창작공간 기능을 강화했고 교육생 및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콘텐츠 창작 분야 전공을 세분화(1전공 → 2전공(콘텐츠 기획, 3D모델링))하고 자율전공을 신설하는 한편 교과과정을 고도화하여 보다 내실있는 교육을 제공할 여건을 조성했다.

아울러 메타버스 기업 핵심기술 관련 현업인 특강, 교육생 프로젝트 수행 멘토링, 인턴십을 통한 우수인력 채용 등을 통해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지원하는 참여기업도 대폭 확대('22년 45개 → '23년 57개) 했다.

이날 입학식에서는 올해 개소한 동북권(대구, 경북, 강원) 메타버스 아카데미 개소 선포와 현판 전달식도 함께 이루어졌다. 동북권 각 지역은 지역 특화산업과 연



계한 교육을 통해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메타버스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한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부는 메타버스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디지털 100만 인재를 양성하고 있

다."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소한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통해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우리 청년들이 디지털 핵심인재로 성장하여,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디지털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강원도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수소버스 활용 확대 업무협약 체결!

수소버스 보급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모빌리티 보급 증진으로 성장 기대

강원도는 6월 8일 오전 원주 호텔인 터볼고에서 환경부, 원주시,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해당업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대자동차, SK E&S, 강원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과 수소버스 전환·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강원도에 2026년까지 수소버스 100대 이상을 보급하고,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투근용, 행사용, 업무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기존 내연기관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여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정광열 강원도경제부지사는 "공공기관 수소버스 전환·활용 업무협약을 통해 수소 산업 발전의 주민 체감 증대, 미세먼지 저감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마중물로 강원도를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여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시간이 짧아 이동거리가 긴 전세버스에 강점이 있으며, '23년 말에 준공 예정인 원주시 역화충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수요처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 참석하는 공공기관은 공공부문 무공해차 보급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이행을 위해 노력해온 기관으로서, 향후 전국 공공기관 수소버스 활용 확대 및 공공기관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이행을 촉진하고 선도적 모범 사례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다.

정광열 강원도경제부지사는 "공공기관 수소버스 전환·활용 업무협약을 통해 수소 산업 발전의 주민 체감 증대, 미세먼지 저감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마중물로 강원도를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여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손질'

충남도가 지역 건설기업의 도내 대규모 발전사업 참여를 늘리기 위해 발전소가 있는 4개 시군 및 발전 3사와 손을 맞잡았다.

도는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개정'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김태홍 지사와 보령·당진·서천·태안 시장·군수, 한국중부·서부·동서발전 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경과보고, 협약서 설명, 협약 체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전국 최대의 석탄발전소 밀집 지역으로 미세먼지 발생, 송전선로 건설 등 막대한 환경피해를 보면서도 그동안 건설 과정에서 지역기업의 참여는 외면받아왔다.

이에 따르면, 지역기업이 발전 3사의 도내 건설공사를 수주한 비율은

2021년 기준 8%에 불과해 지방자치단체 83%, 정부 기관 40%, 공기업 1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도는 발전소 건설공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현재 운영 중인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지침'을 개선하는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지난 2011년 제정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우대기준을 12년 만에 타 법률과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발전사업자가 공사 30억 원 미만·물품 1억 원 미만·용역 2억 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주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도록 한 기존의 제도를 금액 제한 없이 우대하는 것이다.

또 개정하는 지침의 적용 범위를 해당 시군에서 관할 시도의 기업으로 확대하고 우대 가산점도 상향할 방침이다.

도는 앞으로 우대기준 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타 시도 공조를 강화하고 정부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공론화

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발전소 주변지역법 시행령'의 금액 제한을 없애고 지역업체 가산점을 높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에너지 전환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 지역을 살리는 제도도 법령이 확립될 바"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역의 기업과 자재와 인재로 지역의 미래를 건설하는 일에 모두 힘을 모으자"라면서 "앞으로 타 시도, 발전 5사와 함께 논리 개발에 매진하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행령 개정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10조원 자금 조성, 대체 산업 육성 등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진주시, 6개 기관 기업과 '한국형 AAM 산업생태계 조성' 업무협약

경상국립대·경상국립대병원·GS건설·GS칼텍스·LG유플러스·KAI와 체결

진주시는 7일 경상국립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 GS건설, GS칼텍스, LG유플러스와 한국형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조규일 진주시장, 권순기 경상국립대학교총장, 안성기 경상국립대학교병원장, 김지홍 KAI 전무, 허윤홍 GS건설 사장, 박상훈 GS칼텍스 상무, 이상엽 LG유플러스 CTO가 참석한 가운데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에서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진주시는 한국형 AAM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경상국립대학교는 UAM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를 통한 기술지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은 시범도시 사업을 위한 인프라 활용 및 EMS 운영 분야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KAI는 UAM 기체 개발, GS건설은 버티포트 구축/운용 기술 연구 및 시스템 개발을 통한 UAM 시범사업 유치 협력, GS칼텍스는 지역 주유소 부지의 버티포트 활용, LG유플러스는 UAM 교통관리 플랫폼 연구 및 실증사업 수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UAM 시범도시 사업 공동협력, 미래항공기체(AAV) 실증센터를 활용한 체계 검증 등 연계사업 발굴, UAM 기반 인프라 구축 및 활용사업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미래항공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미래항공기체(AAV) 실증센터와 연계하여 AAV 기체 생산기업을 유치하고 관련

부품산업을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진주를 포함한 경남의 항공산업 발전과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규일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의 미래항공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자체, 기관, 기업이 뜻을 모으는 자리이다.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진주시가 AAM 산업생태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선도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미래항공분야를 진주 미래 100년을 책임질 분야로 인식하고 UAM(도심항공모빌리티) 산업육성을 위하여 2016년부터 UAM 관련 국제 콘퍼런스를 매년 개최해왔으며, 2021년 5월에는 국토교통부의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됐고, 같은 해 11월에는 기관·대학·기업·군을 아우르는 'UAM진주' 협의체를 결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경남도, 진주시, 사천시, 경상국립대학교, KAI 등 5개 기관이 'UAM 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올해에는 이반성면 가산일산산단 일원에 AAV 기체에 대한 연구, 실증시험, 비행시험까지 운영체계 검증이 가능한 미래항공기체(AAV) 실증센터를 구축하여 내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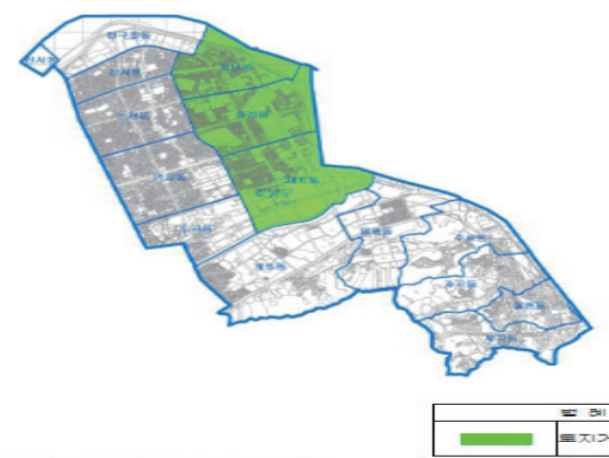
또한 관련 공공기관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기체 생산, 실증시험, 비행시험, 기체 인증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기관 등을 집약하여 진주시를 한국형 AAM 산업생태계로 조성할 계획이다.

최광용/기자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투기수요 우려·송파구 잠실동·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지정 유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일대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5일 공고 하여 6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발효된다.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시는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

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4가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다만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정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게 되는 10월 19일 이후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삼성전자 배후주거단지 가재지구의 시작 -

제일건설(주)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BL' 9일 견본주택 오픈

전용면적 84·103㎡, 총 1,152가구
규모의 브랜드 대단지
3.3㎡당 평균 1,400만원대 합리적인 분양가...
6개월 후 전매도 가능
2일 특별공급, 13일 1순위 청약 진행...
20일 당첨자 발표

제일건설(주)은 9일 평택시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BL'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바로 옆에 위치한 직주근접 아파트 이자, 삼성 및 반도체 산업의 배후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는 가재지구의 첫 분양 단지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특히 가재지구는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향후 총 3,701가구 규모의 제일풍경채 브랜드타운 형성도 예정돼 있어 이에 따른 관심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BL은 평택시 가재지구 공동2블록에 지

하 2층~지상 최고 29층, 12개동, 총 1,15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전용면적 84·103㎡의 중대형 아파트로 구성되며, 타입별 가구수는 ▲84㎡A 819가구 ▲84㎡B 162가구 ▲103㎡ 171가구다.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1,400만원 대로 책정됐다.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는 4억원 후반대다. 인근의 기 입주 단지가 4월 들어 7억원대에 실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분양조건도 돋보인다.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1차)와 함께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제공한다. 특히 수요자들의 중

도금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1.5% 확정 이자를 입주시 지급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여기에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해 중도금 대출 전 전매할 수 있다는 점도 메리트다.

청약 일정은 6월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월 16일 1순위, 6월 19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6월 23일이며, 이후 7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1순위 자격요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평택시 및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와 1주택 이상 소유자도 청약할 수 있다.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BL이 조성되는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반도체밸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가재동 일원 약 62만㎡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약 4,900세대, 인구 12,700명의 수용이 계획돼 있다. 단순 주거시설 개발이 아닌 학교, 공원을 비롯한 주거거지 약 5,400평 개발을 통한 다양한 상업시설도 들어서실 예정이어서 일대 산업단지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최적의 배후주거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감이 높다.

단지는 가재지구 내 인프라를 모두 가

깝게 이용할 수 있어 탁월한 정주여건이 기대된다. 특히 도보거리에는 초교, 유치원이 계획돼 안심 통학권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반경 2.9km에(차량 이용 시 6분대 이동 가능)는 1호선, SRT, GTX(A, C)노선 연장 추진이 되고 있는 평택지제역이 자리해 광역교통망도 우수하다. 특히 평택지제역은 오는 2025년 수원발 KTX가 정차해 광역 노선이 추가될 예정으로, 최근 정부가 이곳을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미래형 교통 허브로 탈바꿈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혀 교통편의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제역 제일풍경채 반도체밸리 2BL은 100% 지하주차장 설계를 적용하고, 석가산을 포함한 대형 잔디마당과 어린이 물놀이터, 맘스테이션 등 다양한 테마공원을 품은 공원형 단지로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단지 내에는 다양한 고품격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선다.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런드리카페, 작은도서관, 독서실, 1인독서실, 스티디룸, 스크린 골프연습장 등이 도입된다. 여기에 기존 아파트에서 보기 드문 스크린 야구장과 스크린 테니스장도 마련돼 눈길을 끈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돼 채광과 통풍이 뛰어나며, 전 가구 4베이 판상형 설



지제역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BL | GRAND OPEN 1660-2234

계로 개방감과 공간활용성을 높였다. 또한 타입별로는 현관 팬트리, 드레스룸, 불박이장 등을 도입해 수납공간을 확대했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삼성, 반도체, 산업단지 키워드를 모두 갖췄다는 점에서 예비청약자들의 관심이 뜨겁다"며 "고덕신도시의 인프라를 공유하면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 실수요와 투자수요 모두에게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견본주택 오픈을 기념하여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특히 청약신청자 전원(특별공급 및 1순위)을 대상으로 백화점상품

권 10만원권을 증정하는 '전국 청약 자랑' 이벤트를 실시한다.

또 견본주택 오픈 3일 동안은 추첨을 통해 삼성비스포크 에어드레서, 인버터제습기, 55인치 TV 등을 증정하는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망고빙수, 탕후루, 떡볶이 등 다채로운 먹거리와 인생네컷, 인형뽑기, 물대포 게임 등의 색다른 놀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BL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87-9, 10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6년 3월 예정이다.

문의 : 1660-2234

강성규/기자

